

從北의원 퇴출 빨리 매듭지으라

이석기 통일진보당 의원(이하 이석기)에 대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4·11 총선 전에 알았다고 상상해보자.

이석기는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 일만큼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선거를 2주 앞둔 3월 29일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가 “통진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는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 1997년 해체된 이후에도 조직 재건 활동을 펼친 인물”이라며 대표적 종북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진당은 “민주화운동을 하다 10여 년 전에 복권된 양심수를 ‘간첩’으로 둔갑시키느냐”며 ‘색깔론’으로 맞받았다.

국민이 통진당과 종북세력의 실상에 대해 어리버리하는 사이에 총선이 치러졌다. 통진당은 지역구에서 7석,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10.3%로 6석을 얻어 내 13석을 거머쥐었다. 민주당이 통진당과의 연대로 붉은 색깔에 물타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넘볼 수 없는 쾌거가 분명했다.

총선 일주일 뒤인 18일, 국민참여당 출신 이철호 부산 금정위원장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규탄하며’라고 고발함으로써 비로소 이석기의 정체에 대한 논란이 본격 전 개됐다. 국민이 모르거나 무시했던, 설마 하며 안 믿었던 종북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석기가 “애국가 부르면 쇠신이나 씨x” “종북 운운하는데 종미가 더 큰 문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북한과 아무런 연계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발언함으로써 사람들은 종북의 실체를 마침내 인식하게 된 것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종북 세력의 뿌리, 운동권 NL파(민족해방파)는 2000년 민주노총 중심의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하는 ‘통일전선전

술’을 통해 당을 장악했다. 세의 확장과 탈색을 위해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일부와 합당해 통진당을 탄생시켰고, 민주당과 연대함으로써 집권시 공동정권의 한 축까지 확보한 것이다.

이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조지 오

특별기고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연합’으로 분단현실을 공동 관리하는 ‘1단계 통일’ 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가 지향하는 통일도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 될 수 없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것을 확신했던 ‘야권연대’ 세력은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자유민주주의의 대

임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전당대회 직전 “종북사상이니, 자격심사니 하며 대대적인 이념 심사를 자행하는 것은 악질적인 매카시즘”이라며 한통속임을 입증했다.

그들이 이름표를 보통 서민으로 살아가간다면 어떤 생각을 하든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이나 주민의 인권 유린, 핵무기 개발과 남(南)을 향한 도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며 헌법적 가치 부인이다.

북의 체제와 도발을 감싸거나 편드는 발언과 행보는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투표 전에 의원이 될 사람의 국가관을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우리는 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를 지금 톡톡히 치르는 셈이다.

동아일보는 통진당 경선 부정 의혹이 터진 직후인 5월 4일 사설을 통해 “통진당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쓴 바 있다. 정당활동의 자유도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민주주의 그 자체를 허물려는 민주주의의 적(敵)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이것이 ‘방어적 민주주의’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8일 라디오연설에서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큰 문제”라고 남의 일처럼 지적만 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언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운명이다. 기자가 되어 종북 세력을 감시하고 보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하늘이 준 축복이다. [K]

정당해산 憲裁심판등 적극 추진을 자유민주수호 언론인 사명 다해야

월의 ‘1984년’에 나오듯, 혁명에 이로운 것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국회 내 교두보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정도는 문제도 아니다. 이석기는 통진당의 의원직 자진사퇴 요구와 제명 시도를 끝 끝내 묵살함으로써 마침내 금배지를 달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기를 쓰고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을까. 당면 목표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수호이고, 궁극적으로는 ‘2013년 체제’의 완성이란 본다. 탈북자 출신 1호 국회의원의 원인 조명철은 통진당을 보고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집으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통탄한 바 있다. 이들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3년 체제’라는 말을 만들어 낸 백낙청씨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3년 체제는 정전협정을 평화

사회주의(물론 포장은 복지국가다) 체제 선택으로 대선 국면을 몰아갈 작정이었을 것이다.

하늘이 도왔는지, 이제 국민은 종북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됐다. 총선이 끝난 뒤여서 분하고 안타깝지만 대선이 끝난 뒤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그러나 이석기를 포함해 비서진이 라는 이름으로 종북 세력이 대거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이 좌우되고,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 구축함-고속정-K2소총 구입금액 같은 것도 의원 사무실에 앉아 전산망으로 훤히 보다가 실시간으로 어디든 전송할 수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할 때 최루탄 아니라 수류탄을 터뜨려도 속수무책인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 우려에 대해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사상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과 3대 세습, 주체사상을 묻는) 이런 형태의 질문과 프레

從北세력이 더 큰소리 치는 나라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한 사람인 안철수 교수가 던진 말로 보도되어서 화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에는 빨갱이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안 교수의 세상 보는 눈이 그 정도로 어둡다면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아니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것인가.

요즘은 종북 좌파들의 세계도 많이 진화해서 그 복잡한 계보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 ‘주사파’니 NL이니 경기 동부연합,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 등 다양한 계열로 분화하고, ‘종북’도 ‘진보’란 가면을 쓰고있다. 그러면 남한 내의 종북세력은 모두 얼마나 될까. 종교계, 교육계, 노동계, 심지어 권력의 중심부까지 스며들어 암약(暗躍)하고 있으니 아무도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한다.

북한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꿰고 있었던 황장엽씨는 생전에 남한에는 고정간첩만 5만명이나 된다고 말해서 충격을 주었다. “설마 5만명까지야 될라구?” 당시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1995년에 안기부(국정원의 전신)가 공식으로 밝힌 ‘국내 친북세력’의 숫자도 4만2천명이었다.

황씨의 증언과 거의 근접한 숫자다. 안기부가 출처인 만큼 안 믿을 수도 없다. 그 반만 믿는다 치더라도 지금 나라 안에는 북한이 남한에 심어놓은 ‘붉은 일꾼들’이 2만명은 넘는다고 보아야 한다. 간첩활동이 용이(?)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 불어날 숫자는 계산에서 빼더라도 말이다.

한 가지 이상한 일은 MB 정부에 들어와서도 좌파정부 10년이나 마찬가지로 간첩을 잡았다는 소리를 별로 들어본 일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면 대체 그 많은 간첩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하늘로 솟았는가, 땅으로 꺼졌나. 그리고 간첩이 없어서 못 잡는 것인지, 있

는데도 안 잡는 것인지도 궁금한 점이다.

이제는 아예 김일성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반제(反帝)청년동맹’ 결성(1989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민혁당에서도 서열이 높았던 골수좌파가 국회의원으로 뽑혀서 의사당의 한 자리를 버젓이 차지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으니 나라꼴이 참 우습게 돌아가고 있다. 문제의 인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빨갱이 어디 있느냐” 한심한 생각 ‘매카시즘’ 제대로 모르고 들먹여

물 이석기는 입도 험해서 대한민국을 야유까지 하는 판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퇴출운동이 벌어지자 “부정의 비율이 50-70%는 넘어야 부정선거”라고 뻔뻔스럽게 우기질 않나, 건국 이래 줄곧 불려온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니 차라리 아리랑으로 바꾸라고 충고까지 한다. 종북 빨갱이들의 이런 ‘안하무법(眼下無法)적인 작태를 대체 언제까지 놔두고 볼 것인지 국민들은 마음이 착잡미묘할 뿐이다.

매카시즘은 마녀사냥이 아니다

좌파 지식인들은 궁지에 몰리면 ‘매카시적 수법’이니 ‘색깔론’이란 말을 전가의 보도마냥 휘두르며 역공(逆攻)을 편다. 그런데 문제는 매카시즘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확대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 문제다. 매카시즘이라면 대부분이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마녀사냥꾼 정

강이 공포증)에 걸려 전전긍긍했던 암울한 시대상을 살아야 했다. 매카시는 문제의 블랙리스트를 비공개 청문회에 서만 밝혔고 언론에는 함구했다. ‘억울한 인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였다. 그것이 수난의 시작이다. “누군지 실명을 밝혀라” 진짜 빨갱이들의 등쌀에 시달려야 했다. 매카시는 ‘근거 없는 선동자’ ‘마녀 사냥꾼’ 등으로 지탄받는 신세가 됐다. 중국에는 지지자들이 다 결을 떠나 외로운 신세가 되었다. 지병인 두통과 조울증까지 악화되어서 4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매카시는 한 때 극단적인 반공주의자가 되어 심지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을 정도로 정도가 심했었다.

하지만 매카시즘의 진면목은 그의 사후에 비로서 드러났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기밀문서도 해제된 것이다. 그 문서에서 매카시가 지목했던 인사들이 소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모

두 밝혀졌다. 그 중에는 국무부 차관보와 재무부 차관보도 소련의 간첩으로 확인되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쟁정책 보좌관도 첩자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로젠버그가 원자폭탄의 기밀을 소련에 넘겨주었다는 부부간첩사건이다. 한국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던 해인 1953년 6월19일 로젠버그 부부는 2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의자에 앉아서 숨져갔다. 결론은 조지프 매카시가 폭로한 ‘반국가 이적(利敵)행위자’들의 80%이상이 사실로 밝혀져 매카시는 결코 마녀사냥꾼이 아니었으며 도리어 공산주의자들이 미국땅에는 밟도 못 붙이게 한 애국자로 재평가 받는 결정적 모멘텀이 되었던 것이다.

매카시즘에 관해서는 민주통합당의 새 대표가 된 이해찬씨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인 것 같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박근혜 세력의 악질적인 매카시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저 패악무도(悖惡無道)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그의 말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고,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MB가 몇 가지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 치더라도 ‘패악무도한 정권’이 뭔가. 얼핏 듣기엔 북한의 대남방송이라도 듣는 기분이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해찬씨에 대한 네티즌들의 호칭이 두 가지로 나온다. ‘버럭 이해찬’이 그 하나고, ‘배운 무식쟁이’가 또 다른 하나다. 패악무도라는 4자도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다. 패역무도(悖逆無道)라 해야 맞는다. 말은 ‘사상의 의상(衣裳)’이라고 했다. 품위있게 해야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너절하게 지껄여서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법이다. [4]

‘노무현 정치’의 재현인가. 노무현의 정치적 적자(嫡子)들이 토해낸 최근 발언들은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노무현 정치란 바로 ‘한풀이 정치’이다. 기력이 다해가는 MB정권을 향해 “패악무도한 정권을 끝내야한다”고 외친 이해찬의 6·10 민주항쟁 기념식 연설과 대한민국의 오늘을 ‘암울한 시대’로 규정한 문재인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은 그 문맥을 음미해보면 정권을 빼앗긴 후 지난 5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가슴속에 품어온 원한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난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은 정책으로서나 이념으로서나 패악무도는커녕 사실상 ‘우유부단·좌고우면’ 정권이였다. 집권초기 광란의 ‘광우병’ 촛불시위에서부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종북의 발호 등 불법난동·안보도발·체제도전에 대한 대처에서 모두 그랬다. 지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집권 중반에 내세운 중도와 실용은 결과적으로 국정

‘노무현嫡子’들의 한풀이

다. 그런 정권을 향해 패악무도라고? 이해찬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을 완벽하게 잘못 짚은 셈이다.

문재인이 독립문을 무대장치 삼아 토로한 경선출마 선언은, 그로서는 비장한 출사표(出師表)였겠지만 그 함의(含意)는 말 그대로 ‘참을 수 없는 가버움’이었다. 문재인은 “지금까지 우리 보통사람들은 날지도 울지도 못하는 새였다. 나라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고,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나서서 말도 못했다”



조규석

·본보 편집위원
·전 세계일보 논설실장

면서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다”고 했다. 그럴듯한 ‘웅변’인 듯싶지만 사실은 시대상황부터 완벽하게 왜곡했고, 그래서 대권을 향한 출사표로서는 공허하기 그지없다. 아니 기만적 수사(修辭)로 들릴 뿐이다. 문재인이 오늘의 세태를 조금이나마 감안했더라도 그런 출사표는 나올 수 없다. 현직 판사·현역

장교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통령을 ‘가가 새X라고 하고,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고 인터넷 공간에

는 종북 사이트가 넘쳐나고, 지하공산당 핵심조직책과 대학시절 불법 월북해 김일성 품에 안겼던 ‘주사파’ 여성이 버젓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나서 각각 애국가를 모독하고 탈북동포를 모멸하고… 이처럼 기막힐 정도로 자유가 만발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나서서 말도 못했다?’ 실로 만인을 웃기는 허튼 소리다.

물론 수백만 인민을 아사토록 했고 인권을 철저히 말살시킨, 그래서 진짜 패악무도의 원조인 북의 세습정권이 퍼주기 대북 지원을 중단한 이명박 정권을 향해 패악무도하다고 했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찬의 논리다. ‘패악무도한’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민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내정간섭·외교적 결례’라면서 참담한 북한인민의 생존을 돕기 위한 ‘북한인권법’은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말 희한한

從北의원 그들은 과연 ‘우리’인가

주한 외국인론인이 본 시각

특별기고



하코다 데쓰야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그들의 행동은 당연히 대중사회에서 지지 받기는커녕 비난 받았으며 결국 ‘타자(他者)’로 낙인 찍혔다. 이번 종북 소동과 연합 적군사건은 규모도 경위도 크게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의 이념의 폭주는 일본에선 지금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리라고 보는’ 동포의식 비중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내년2월에 새정권이 발족하면 그 정상이 누가 되든 또 새로운 북한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통합진보당 두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과연 ‘우리’ 일까?

심한 공격과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2명을 보면 분명히 당이나 의회로부터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이상 2명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벌써 정치의 계절에 돌입하고 있는 탓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다소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온통 그들의 언동의 부적절함에만 초점을 두고, 문제의 심층분석보다도 단순히 종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다.

북한과의 관계나 정치적토양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 일본에서 동일한 소동이 일어났을 경우 적어도 이른바 퀄리티페이퍼(quality paper)라고 인정 받는 주요 일간지는 한국하고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한국이 FTA를 잇달아 체결해 가는 데 일본은 도무지 진척이 없다. 그 문제의 근원으로 종래의 상습관에 기인한 두터운 ‘비관세장벽’을 지적한다. 한국은 크게 문호를 열고 외부에서 온갖 물건을 받아들일 각오를 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른바 ‘이념장벽’의 높이는 물건만큼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내가 한국의 이념장벽의 장래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종북 소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매우 냉정하게 응시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한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른 많은 문제를 포함해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보도하는 미디어의 모습이 즉, 민의를 나타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 한국의 이념의 벽은 누구나가 스스로 뛰어 넘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아져 있을까? 그때 ‘우리’의 범위는 더욱 더 넓어져 있을 것인지... [4]

새삼스러운 말 같지만 그 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느낀 소박한 의문인데 최근 다시 생각하게 된 한국어가 있다. ‘우리’라는 말이 그것이다.. 언어를 배우려고 한국에 찾아오는 일본인들이 맨 처음 당황하는 말. 그 대표 예가 바로 ‘우리’라는 말이다.

일본인들은 ‘우리’를 단순히 ‘와타시타치(私たち)’ ‘We’ 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국사회에 융화되어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라는 말이 단순히 1인칭 복수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모국. ‘우리회사’는 자신의 근무처. 이런 당연한 것에는 위화감이 없다. 그러나 ‘우리 엄마’, ‘우리 애기’라는 표현방식에는 저항감을 느낀다. 바로 옆에 형제나 배우자가 있다면 또 모르지만 자기 혼자 엄마나 아이를 부를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엄마’, ‘내 애기’이지 ‘우리 엄마’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놀라는 것은 ‘우리 마누라’. 도대체 ‘우리’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의 최소 범위는 단 2명이었고 최대 범위는 지구전체. 즉 때와 경우에 따라서 신축자재(伸縮自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도 분단국가의 비극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4월의 총선거를 둘러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2명의 ‘종북’ 소동이 계속되고 있다. 마치 남북한 뒤에서 암약(暗躍)하는 비밀공작원들을 그린 영화라도 되는 듯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보도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 모두 합쳐 1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매일같이 미디어가 전하는 그 의원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많은 면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다. 그들의 사상신조가 보도와 같이 정말 ‘종북’ 인지 아닌지 나도 알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놀라는 것은 바로 최근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금기(禁忌)에 가까웠던 말들을 백일하에 거론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대표를 국회로 보내는 것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한민족에게 있어 ‘우리’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종북론이라는 것은 완전히 별개로 제쳐두고 우선 확실히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민의(民意)의 총의(總意)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 있어 부정은

言動 비난만 말고 심층분석 필요 미디어 냉정한 보도자세 아쉬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법이나 규정에 의거하여 엄하게 벌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조직 내에서 불만스러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이상 폭력을 수단으로 그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12일에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일어났던 폭력 소동은 결정적이었다. 화장기 없이 옛되보이는 여성이 증오의 눈을 번쩍거리며 이를 악물고 당대표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모습을 담은 단 한 장의 사진은 이 집단이 일반적 감각과는 동떨어진, 즉 일반인들과 같지않은 ‘타자(他者)’의 집합이라는 메시지를 한국내외에 전했다. 일본의 일정 이상의 연령층 중에는 ‘연합적군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안보투쟁말기 학생운동이 안정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 초, ‘혁명’을 지향한 젊은이들은 내부대립 끝에 반성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포의 숙청’을 단행하게 되었고 대량살인사건으로 발전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한국에서의 대립 원천의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지역 일까? 계층일까? 혹은 북한을 보는 시점일까? 이번 종북 소동은 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라는 가치관의 차이에 있다.

외신기자로서 서울에 주재하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한국의 대 북한관이나 통일관이 그때그때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6월 거리에는 북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캐릭터 상품이나 초상화를 새긴 티셔츠까지 등장할 정도로 화해의 공기가 감돌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씨가 포옹하는 모습은 타국의 기자로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꼈다. 북한을 마귀나 짐승으로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에게 북이 같은 인간이며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재확인 시켰다. 동시에 그것은 북 또한 ‘우리’로서 대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북은 2번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반복했다. 이명박헌정권하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남북을 가로막는 감정의 골을 한층 깊게 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점점 북을 ‘우

2면에서 이어집니다.

‘내재적 접근’ 아닌가.

문재인도 막상막하다. 노무현 시대 5년 동안 새로운 기득권이 되어 영화를 누렸던 세력으로서 이명박 집권이후를 정녕 암울한 시대로 인식할 만하다. ‘좋은 자리’ 다 내놔야 했고, 더구나 노무현 자살 이후에는 정치적 재기의 희망까지 무산된 듯 싶었을 것이므로... 그러나 노무현 적자들의 핵심인 이해찬과 문재인이 각각 제 1야당의 대표·유력 대권 주자로 우뚝 재기했다. ‘폐족’의 극적이고도 완벽한 부활이다. 역사는 대체로 패자에게 가혹하지만 때로는 행운의 미소도 짓는다는 진리

가 지금 새롭게 입증된 셈 아닌가. 그럼에도 어쩌서 기만적 선동언어로 시대를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취약점은, 증오의 부추김이 대단히 유효한 선동수단이 되고 그것으로 표를 모으게 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증오 마케팅’이 정치의 수단으로 큰 몫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인 현재권력과 체제에 대한 일부 불만민중이 바로 그 증오의 구매자들이다. 따라서 이해찬·문재인이 토해낸 정치수사들은 결국 증오 구매자를 늘려 대권시장에서 크게 한몫 챙기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일찍이 노무현이 그러했다. 그는 기

득권 세력에 대한 민중의 반감을 증오심으로 결집시켜 집권에 성공했다. 5년간의 국정기조도 증오가 버팀목이었다. 그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한 치욕의 역사’라는 부정적 역사인식을 어록으로 남겼다. “그놈의 헌법 때문에...” 라는 발언이 상징하듯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도 증오를 표출했다. 수도 이전 시도를 ‘주체세력의 교체를 위해서’라고 했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감의 노골적 표출이었다. 노무현 집권은 그렇게 증오전략의 성공적 결과이고 그의 시대 5년의 정치는 기존의, 기성의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한풀이었다.

이해찬·문재인도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보다는 ‘잃어버린 5년’에 대한 한풀이가 집권의 목표인 듯싶다. 따라서 그들은 노무현이 ‘노사모’를 통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떠나 표류하는 민심을 증오로 결집시켜 집권을 획책할 것이다. 그들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증오마케팅을 펼쳐갈 것이라는 관측은 거기서 나온다. 노무현 정치의 재현을 위한 노무현 전략의 답습이다. 결국 북의 핵위협 앞에서 대한민국의 ‘남남 갈등’은 어느 때보다도 증폭·심화될 것이다. 이해찬의 6·10 기념 연설과 문재인의 대선 출사표는 이를 예고한다. 실로 중차대한 시국이다. [4]

‘法治주의’ 가치 지켜 나가야 한다

오늘은 6·25전쟁이 일어난지 62주년이다. 나는 6·25 전쟁을 한편의 역사드라마로 본다. 62년전 한반도의 정치상황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힘을 배경으로 공산당을 만들어 ‘봉건주의 타파’와 ‘민족통일’의 가치를 내걸고 혁명의 이름아래 법치주의를 무시한채 반대세력을 일거에 숙청한 후 토지등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단번에 국가 생산력을 증강하고 막강한 무력을 만들어 통일전쟁준비에 들어갔다. 반면 남한은 유엔의 결의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총선을 통한 의회정치제도를 만드는데 주력하여 경제발전이나 국방에는 소홀하였다. 그결과 북한은 6·25 침공후 3일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1개월만에 낙동강까지 진출하여 전쟁의 승리가 목전에 있었다.

반면 남한은 탱크 한대, 비행기 한대 없이 전투한번 제대로 못하고 일방적으로 밀리는 패배끝에 패전과 항복을 눈앞에 두었다. 드라마를 여기까지만 보면 북한은 인구면에서 남한의 반이 안되는 열세지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김일성이 독재와 혁명을 한 덕분에 단기간에 체제를 갖추어 민족통일의 과업을 달성하는 반면 이승만은 서구에서 들어온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해보겠다고 공언히 국력을 낭비하며 정쟁만 하느라고 동생뻘의 북한에게 국토를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장면이었다. 그러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젊었을 때 하버드대 법대에서 국제법을 공부한 법학도였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을 건국함에 있어 북한처럼 일방적으로 정부를 만들지 않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총회 결의를 거쳐 수립하는 절묘한 법적절차를 밟았다. 그결과 6·25 전쟁은 김일성이

제 아무리 ‘민족통일’이라는 명분을 걸었지만 국제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침략전쟁으로서 유엔의 제재 즉 유엔군의 참전을 불러 북한군은 압록강까지 되밀려 하마터면 중국이나 시베리아로 달아나야 할 처지가 되었다. 운 좋게 모택동이 수백만의 구원군을 보내 김

특별기고



김평우

·직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공산혁명 맞서 이긴 6·25의 교훈 從北派 국회 입성으로 위기 직면

일성은 정권을 유지하였다. 결국 6·25 전쟁은 남한의 법치주의가 북한의 공산혁명을 이긴 것으로서 법치주의 승리의 세계사적 사례이다.

1953년 휴전 이후에도 김일성은 끝내 공산, 통일의 꿈을 못버리고 천리마 운동이니, 선군주의니 하면서 1인 독재, 개인숭배를 강화하여 갈수록 법치주의와 멀어졌다. 그결과 북한은 국제고립을 탈피하지 못 한채 아프리카 국가만도 못한 세계최빈공국가, 기아국가로 떨어져 마침내 국제적인 불량국가로 낙인찍혔다. 반면 남한은 휴전후 한동안 전쟁 후유증으로 정치혼란에 빠져 자유당의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지만 학생혁명으로 정치적제재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박정희의 군사혁명과 유신독재가 있었지만, 경제발전과 더불어 언론, 학생, 시민들의 민주주의식이 계속 높아져 지속적인 항쟁 끝에 6·29 선언이라는

로 선임되어 문제없이 중임을 하고 있고, 송상현이 세계형사재판소장이 된 것, 그리고 최근 세계변호사회 (ABA)가 아시아지역본부를 홍콩 싱가포르, 도쿄를 제치고 한국 서울로 정한 것 등이모두 한국을 아시아의 법치모범국가로 인정하는 증거이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발전과 법치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킨 세계역사에 그 유례가 드문 국가가 되었다.

한국이야말로 법치주의가 경제발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핵심적인 조건임을 증명한다. 나는 한국이 다음 십수년 내 소득 4만, 5만달러의 통일 국가로 발전할 것을 굳게 믿는다. 다만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법치주의의 고귀한 가치를 새삼 인식하여야 한다.

미국등 서구의 선진국가와 대등한 경제 선진국이 되려면 그들 국가 수준의 법치주의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법치주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

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온갖 특권과 특권의식부터 없애야한다. 국회의원은 의사당안에서 동료의원이나 의장에게 폭력을 써도 문제가 되지않고, 국회의원은 장관을 불러 하루 온 종일 대기시키고도 문제가 안되고 법안을 수백건씩 쌓아놓고 휴회, 폐회해도, 자료를 트럭만큼 요구해 받아 놓고 아무 결과물 없어도 문제가 안되는 이런 특권들이 없어져야 한다.

어디 정치인 뿐인가. 판사들도 특권의식은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판결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고위법관의 임명이나 재임명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만이 법치주의의 적이 아니다. 법치주의의 1차적 적은 경제적 불공평이 아니라 정치적불공평이다. 우리사회에서 모든 정치적 특권을 없애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인들이 이룩해야할 선진법치주의의 일차적 과제이다.

끝으로 한마디 첨언할 것은 종북주의에 대한 경계이다. 앞의 6·25 드라마에서 보았듯이 북한이, 김일성이 실패한 것은 법치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보편적 가치인가를 몰랐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민족통일, 노동자계급해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상대방을 숙청, 제거하고 권력을 잡아 전쟁을 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물든 사람들이 최근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되어 국회에 들어 와있다. 이야말로 법치주의 드라마의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4]

“야, 빨간 옷 입고, 색 쓰지 마!”
지난봄의 일이었다. 옛 동료들이 후배가 책임자로 있는 기관을 방문했다.

멋진 후배의 장한 모습에 박수를 쳐주고 기념 촬영할 때였다.

옆에 섰던 한친구가 툭 치며 던진 말이다. 순간 아찔했다. 오랜 세월 함께 하긴 했지만 이런 말을 주고받을 만큼 친한 사이였나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붉은 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밝은 색과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다.

1997년도였다. “어두운 색깔의 옷이 유행하면 사회 분위기는 우울해지고 경제난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누군가의 글을 읽고 공감 했었다. 백화점에서는 여겨 보니 젊은 아가씨들까지도 모두 단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온통 우중충한 분위기였다.

뉴스 제작회의에서 밝은 옷 입기 캠페인을 벌이자는 제안을 했었다. 경제부장이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설명을 한 뒤였다. 물론 채택되지 않았다. 그해 우리는 IMF를 겪었다. 그리고 밝은 색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어두움 보다는 밝음이 낫지 않나? 금

‘색깔’ 분명히 하기

정적인 사고가 좋지 않은가? 밝은 게 좋다는 데 이의를 달 이유는 없지 않은가? 지금 옷장에도 밝은 색 옷이 비교적 많다. 그냥 한 말이겠지만 집에 가서도 “야, 색 쓰지 마!”란 말이 지워지지 않았다. 까불지 말란 뜻인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이 칠십인데? 새누리당 상징색을 걸친 것이 못마땅했나? 공산주의를 연상하는 색에 대한 거부감이었나? 아니면 나이에 걸맞지 않은 옷차림에 대한 우정 어린 충고였나? 전화라도 해서 묻고 싶기도 했지만 괜히 쯤뻔이란 소리만 듣게 될 것 같아 묻어 두었다. 그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수필가

런데 주사파니 색깔론이니 매카시즘이니 하는 말들이 쏟아져 “야, 색 쓰지 마!”란 말이 되새겨졌다.

그리고 종북 주사파와 관련된 색깔론은 “색 쓰지 마!”란 말처럼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이 참에 색깔론은 분명히 매듭지어야 한다. 시시비비(是是非非)를 확실히 가려내야 한다. ‘색(色)’은 무엇이며 ‘색깔론’은 무엇이고 왜 그것이 문제인지 등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

어렵게 따지고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다. 중세시대 영국의 수도사 윌리

엄 오캄이 주장한 면도날의 원리로 대응하면 된다. 오캄의 면도날 원리는 “항상 보다 단순한 설명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며 공식적으로는 “실체는 필요 이상으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Entities are not to be multiplied beyond necessity.)”라고 설파한 것이라고 한다.

종북 색깔의 문제는 엄존(嚴存)하는 문제이고 엄정(嚴正)하게 대처해야 할 절박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에 맞서는 북한이 있고 그 북한 정권은 포악하며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것은 분명한 실존이다. 그런데 그런 정권을 추앙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종북이니 주사파니 하는 이름으로 버젓이 활동한다. 그들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엄연한 현실은 정말로 괴기(怪奇)스럽다. 종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저들이 물 마시려온 누우를 덮치는 악어처럼 늪 속에 숨어 세력을 키워 온 것을 생각하면 말이다. 이쯤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보

5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익집단’ 전략 국회 품위 찾으라

국회는 민주정치의 중심주체

민주국가에서 의회(議會)는 정치 1번지요,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국가정치의 주역을 맡은 헌법집단이 바로 의회다. 정당으로 구성된 의회는 민의를 받들어 국가이익과 국민생활을 위해 법률을 만들어 내는 입법주체다. 그런 점에서 의회는 민주주의의 본산이요, 정치의 중심이다. 국가기관의 삼부(三府) 중 국회가 국가의 모법(母法)인 헌법에 제일먼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선진권(先進圈)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의회는 오히려 민의를 잃고 무력화하여 제 역할을 못하고, 국회의원들은 애국심과 도덕성을 잃어 국민들에 의해 멸시되고 있다. 그들의 활동조직인 정당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당정치(政黨政治)가 실종되어, 국회의원들은 정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가고 있다.

이것은 정치타락의 표본이자, 정치선진화의 장애요소다.

참전유공자 10배받아

그런 정치 불행을 가져온 중요 원인은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익집단(私益集團)으로 전략한데 있다. 민주정치의 주체인 국회가 그들이 추구해야 할 국가이익·국민편익을 저버리는 대신,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이익과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의 주변이익을 먼저 챙기는 이익단체로 전략했기 때문이다.

국회 사익추구의 대표적인 실례가 18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제정한 의원연금제다. 의원들의 연금기준도 상식 밖으로 부풀려 설정됐다. 그 결과 의원을 지낸 65세 이상 819명이 매월 120만원씩 받아, 국고에서 연 125억원을 털어 간다. 일반인이 연금 120만원을 받으려면, 매월 30만원씩 30여년을 내야만 가능하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의원연금이 전시에 젊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적과 싸운 참전유공 군인연금(월 12만원)의 10배나 된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원봉사로 근무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회로부터 정

치자금을 모으고 고지원을 받아, 그 돈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들은 임기 4년 동안 국가가 만들어준 기구와 인원으로 의원활동을 벌이면서, 어디를 가나 고관 대접을 받는 특권을 누려왔다. 퇴직한 뒤에도 전직 의원으로서 우대 받고 있다. 그런 특권지도층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구종서

·본회 회우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치학박사

私益챙기기-비민주적 특권 포기 의원 연금제 부터 폐지 서둘러야

고 싸운 참전군인보다 열배나 많은 특전을 받아야 하는가.

입법권 남용 봉건귀족화

국회의원이 국민이 뽑아준 헌법기관이라면 국민의사 실행에 주력해야 함에도, 그들은 오히려 사익추구에 몰두했다. 그것은 국가가 부여한 입법권을 휘둘러, 자신들의 특권을 제도화하여 스스로를 봉건적 특권신분층으로 귀족화(貴族化)한 시대착오다.

만민평등(萬民平等)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이런 우월권이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었는가. 국민의 주권행사를 위임받은 의원들이 국민 위에 서겠다는 사적 이기주의(私的利己主義) 법률을 어떻게 제정할 수 있었는가. 그 법률안의 입안자와 입법 추진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불공정한 억지법안이 어떻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의원들이 자기네 뒤통을 차리기 위해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입법 견제권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법률거부권을 행사하여, 그 법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거나 정부에서 수정하여 국회가 재의(再議)케 했어야 옳다.

마침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국회 의원들의 비민주적인 봉건적 특권들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연금제 폐지,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윤리특위 기능강화, 국

수 있다.

한국정치의 양대 정당이 말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쟁탈을 위해 벌이는 천박한 속임수 꼼수정치일 뿐이다. 19대 국회를 장악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실천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선민적(選民的)인 특혜 포기를 주도해야 한다.

전직·현직 의원들은 주어진 특권이 국회에서 공식 박탈되기 전에, 스스로 국민 앞에 그 포기를 선언하고 나서야 선량(選良)으로서의 품위가 선다. 그것은 곧 그들이 입만 열면 떠받치는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나서서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임하는 겸손이 될 것이다.

국회혁신, 헌정회서 주도하라

이런 자발적인 국회정렴운동은 퇴역 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나이든 퇴역 국회의원들이 헌정회(憲政會)를 만들고 나설 때, 국민들은 정치경험이 풍부한 그들이 뒤에서 한국의 입법정치를 돕는 믿음직한 원로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전직 의원이면서 연금제 입법을 승인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는 어긋난 특권 포기 선언에 먼저 나서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다.

지금은 연금법 폐지를 위해 대통령과 전·현직 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된 특권을 포기하고 나설 때다.

그렇게 되면, 사익집단으로 타락한 국회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가 입법부로 부활할 수 있다. 이익단체의 영업직원 정도로 전략한 국회의원들은 다시 나라를 이끄는 민주정치인으로 대접 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병들어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처도 치유되어, 민주정치의 근본인 정당중심의 의회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철저한 인식전환과 혁신행동이 실행될 때 경제약진·문화선진의 한국이 정치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

4면에서 이어집니다.

다 국내 종북이 더 문제라고 한 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 마구 퍼주던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국민들이 몰아준 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그 동안 뭘 하고 있다가 임기 말로 접어든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종북의 문제를 거론할 시점이 아니라 기자들과 종북 문제를 척결한 비화를 나누며 회고해야 시점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게다가 종북 문제 제기를 매가시즘이란 선동으로 덮으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더 큰 일이다. 무조건 북한을 감싸고 종북을 두둔하려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있으며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걸핏하면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면박을 주듯이 말한다. 이런 때에 쓰라고 이순신 장군이 ‘사즉생(死即生)’이란 말씀을 남긴 것 같다. 북한 정권이 핵을 만들고 대포를 쏘대며 GPS 교란 작전을 자행하고 언론사를 협박하는 것은 선전포고의 지경을 넘긴 것인데도 무조건 북한을 달래야 한다고 한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북한이 요구하면 항복이라도 해야 하고 노예 노릇도 감내해야 한다는 말이 나 올지도 모르겠다. 모든 문제는 진실에 바탕을 두고 풀어야 한다. 급하다고 근본을 외면하고 무섭다고 피하거나 임시방편에 매달리면 훗날 더 큰 재앙을 맞게 된다.

사마천이 불후의 역사서인 ‘사기(史記)’를 쓴 기본은 시시비비(是是非非) 정신이라고 한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평가하는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종북 문제를 다뤄야한

다.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이다. 적당히 덮고 정략적 계산으로 얼버무리면 그것이야 말로 민족사에 대한 반역행위일 터이다. 진실 앞에 솔직해야 하고 역사 앞에 진솔해야 한다.

주사와 사상이나 종북 문제는 철저하게 진실과 사실의 잣대로 재평가하고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종북 보다 종미가 문제라고 얼버무리던 통합민주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말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솔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민족사에 최대의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말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지도자들이다. 지금의 절박한 문제를 과거와 비교하며 걸고 넘기려는 사람들은 비겁하다. 종북과 주사와 문제는 단순하고 분명하게 오캄의 면도날로 처리해야 한

다. 모든 논란은 시시비비(是是非非)정신으로 가려내야 한다. 북한과 북한정권을 바로 봐야한다. 그 결과, 보다 많은 국민이 감정을 지도자로 모시고 살면서 굶주림과 억압까지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면 대한민국의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다. 모두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색깔을 확실하게 분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진달래꽃이 TV에 나갔다고 문제가 되던 시대와는 다르다. 색의 정체성을 바로 보고 바른 역사의 길을 찾아야 한다.

색깔 문제를 독재시대와 연계시키는 등의 억지는 부리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색, 쓰지 마!”가 아니다. 그 색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정직하고 바른 색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

나라곳간 버는만큼 써야 지킨다

지금까지의 경제위기 선방이 앞날의 성공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 남들이 이렇게 추켜세워도 우쭐 할 때가 아니다. “2008년의 리먼 브러더즈 발 금융위기를 넘어서 한국은 재정이 건전하고 은행도 튼튼해져 유럽발 위기를 잘 넘길 것이다.” 외환보유 등 외부충격을 이겨낼 ‘방화벽’을 쌓았노라고 큰소리 칠 입장은 더욱 아니다. 우리경제에 언제 ‘퍼펙트 스톰’이냐 쓰나미가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가 부단히 해야 할 일은 위기에 대비하고 또 대비하는 것이다. ‘벌어들인 범위 내에서 쓴다’는 원칙 아래, 나눠야 할 떡을 열심히 키우는 일이 그것이다. 버는 것 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때 예외 없이 탈이 났다. 미국이 그랬고 남유럽이 그렇다. 더욱이 지금 그 냉엄한 현실을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에서 여실히 보고 있다면 우리경제의 지향점은 명확해진다. “누구보다도 잘 벌어야 하고, 또 벌어들인 범위 안에서 복지를 늘려야 한다.”

사리가 그렇게 분명한데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 해에 그런 원칙이 제대로 준용될 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복지증대는 시대의 흐름이다. 양극화 완화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길이다. 한국에서도 ‘정의 신드롬’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부가 증대 했지만, 동시에 빈부격차가 늘어났고 이 불평등이 사회적 유대를 갈아먹는 것을 한국인들도 목격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며 “부의 공정한 분배가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대안 하나”라고 말 한 바 있다. 굳이 그의 말을 끌어대지 않더라도, 부의 불평등이 국가의 가치와 정체성을 해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사실 그런 배경을 두고, 우리의 사회적 지출 증가는 이미 관성을 얻고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되었다.

하지만 시대 조류가 그렇게 변화한다 해도 대원칙은 ‘쓰쓰이가 버는 범위 밖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레임덕에 걸린 임기말의 대통령이 얼마나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기가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의 저성장 징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경제팀에 당부한 것도 심상찮은 상황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여파가 미국



유재철

·본회 회우
·전 세계일보 주필

정치권 포퓰리즘 휩쓸려선 안돼 임기말 정부 긴축등 모범 보여야

과 중국으로 미치면서 우리의 수출과 생산, 소비 등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상저하고(上低下高)라던 경제전망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침체되는 상저하저(上低下底)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자리를 물려주고 있다. 37%로 전망했던 올 경제성장률을 34~3.5%로, 심지어는 3% 초반대로까지 낮출 각오를 하고 있다는 정부의 초조한 모습에서도 다가오는 또 하나의 만만찮은 도전이 절실히 느껴진다.

“ 좋지 않은 예언이나 한다”며 핀잔을 주지만,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전현직 관료들이 경제위기를 제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유럽위기가 지난 미국위기보다 더 위중하고, 따라서 이 위기가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충격적이고 오래갈 것이다”라는 그들의 진단은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내로라하는 세계적 전문가들이 다뤄서 내놓는 작금의 암울한 전망과 다를 게 없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민생의제와 관련해서 제출할 예정인 민주당의 20개 법안도 폭넓은 복지증대를 담고 있다. 반값 등록금과 무상보육,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 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여야 모두 복지 원조당(元祖黨)을 내세울 만하다.

이래서는 ‘버는 범위 내에서 쓰기’란 재정의 원칙을 지켜낼 수 없다. 금융부실을 재정으로 매우다 나라살림을 거덜 낸 남유럽의 재정몰락을 똑똑히 보면서, 똑같은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비극 중의 비극이다.

공무원과 군인 연금까지 부채로 잡은, 변경된 회계기준으로 나라부채는 무려 774조 원이나 된다.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는데도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재정에는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지난 1분기 통합재정수지만 해도 11조3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조9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성장률은 떨어지는 데도 정치권의 복지증대 경쟁이 갈수록 격화된다면 ‘균형재

정’이 한낱 구호로 떨어지면서, 나라의 곳간이 비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복지증대가 가능하다고 떠드는 건 결국 국민을 비참한 과국으로 끌고 가는 꼴이다.

경기조절이 불가피 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국채를 찍어 추가경정예산을 짤다면 재정건전성은 손상이 불가피해진다. 무리한 금융, 재정수단의 동원과 부동산 띄우기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결국 거품과 후유증을 남긴다.

오히려 정부가 긴축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시한 폭탄’이 된 가계부채 문제를 조정하고, 외환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성장동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정치권의 지나친 포퓰리즘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치권에 분명히 표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나라 곳간을 허술하게 지킨다면, 그 책임은 임기말이라는 상황으로도 면해지지 않는다.

사실 나라살림을 먼저 걱정해야 할 주체는 정치권이다. 쓰는 것과 버는 것의 균형 아래 복지증대를 도모하고, 세금을 더 걷어야 재원 늘리기가 가능해진다는 평범한 원칙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물론 행복한 삶이 GDP(성장)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떡(성장)을 더 늘려야 나눌 것이 커진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 현실을 냉철하게 전제하면서, 빛에 의존하는 허망한 복지로 인해 빛어지는 엄청난 오욕과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이제 정치권은 새롭게 다져야 한다.

그런데, 곧 대선 소용돌이에 휩쓸릴 정치권이 과연 그런 대의와 원칙을 지킬 것인가? 국민은 지켜볼 따름이다. [국문]

언론진흥재단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본회 회우·사진)이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A등급(우수) 기관 B등급(양호)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중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모두 한단계씩 상승한 결과

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은 기관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A등급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처음이다.

이번 경영평가의 전체 평가 대상은 기관 156개, 기관장 70명이었다. 언론진흥재단이 속한 준 정부기관의 평가 대상은 기관 35개, 기관장 48명이었다.

언론가 소식

한국일보 창간 58주년 기념식

한국일보(사장 이상석)는 지난 6월 8일(금요일) 한국일보 강당에서 회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5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사원들은 창간 58주년과 지령 2만호 달성을 계기로 재도약의 결의를 다지고 더욱 강하고 훌륭한 매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신문협회상 수상자 해외시찰

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올해 신문협회상 수상자 해외시찰을 실시했다. 지난 6월 14일부터 3박 4일간 1, 2차로 나누어 실시한 이 행사엔 수상자 40명이 참가했다. 신문협회상은 협회가 매년 신문의 날을 맞아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 모범사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스포츠서울 새발행인 김광래 대표

스포츠 서울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발행인으로 김광래(주) 에이앤씨 바이오홀딩스 대표를 선임했다.



세계가 인정한 kt 세계적 권위의 IT분야 어워드 연속수상

2012년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최고기술상 수상, GSMA
2011년 다우존스(DJSI) 통신분야 글로벌 수퍼섹터리더 수상, 다우존스 & SAM
2011년 IP&TV산업대상 1위, ITM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는 GSMA 주관의 세계적인 IT 시상식으로, kt는 2012년 <프리미엄 와이파이 솔루션>으로 국내 통신사 유일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술> 부문 최고기술상 수상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는 다우존스와 투자평가사 SAM이 전세계 글로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평가지수로, kt는 2011년 국내 통신사 최초 <유무선통합 통신분야>의 <글로벌수퍼섹터리더> 수상



IP&TV산업대상은 ITM이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산업대상으로, kt는 2011년 olleh tv로 <베스트 IP 케이블, 하이브리드방송 및 커넥티드 TV 서비스> 분야 1위 수상



「2012여수엑스포 주관통신사 KT」
「올레 내비와 함께 여수엑스포 가세요」



從北-비판은 同色 분석은 各色

‘호국정신 뿌리 위에 자유 민주 꽃피우자’. 호국의 달인 6월 김포 어느 중학교 정문 위 걸개의 글귀였다. 국민 등골을 빼먹으며 호화 의원회관을 새로 지은 19대 국회는 법정 개원 일자도 짓밟은 채 치욕적인 종북 비판에 휩싸였다. 4년간 27억 원을 지원 받는 국회의원에 종북 세력이 창궐한다. 종북 논쟁은 통합진보당 내부의 경선부정 폭로와 당의 사퇴결정을 무시한 이석기·김재연 등의 종북 발언, 민주당 임수경의 탈북자 매도, 이해찬의 ‘매카시즘’ 역공, 최재성의 탈북자 비하 등으로 확산했다.

종북인들은 자유민주체제와 자본주의의 이득을 한껏 누리면서 머리와 가슴은 북을 향해 숙이고 있다. 재판정에선 간첩이 재판장에게 “개새끼 너 죽을 줄 알아”라고 위협하고 미전향 장기수들이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을 검거하는 세상이다.

자신의 자랑처럼 6선에 총리를 지내고 민주당 대표가 된 이해찬은 ‘북한인권 거론 = 내정간섭’이라며 임수경을 비호했다. 북한은 종북 세력을 지원하려고 여당 인사들의 종북 행각을 밝히면 까무러칠 것이라며 협박해 물타기를 시도했다.

종북 논쟁에서 신문들은 성향에 따라 주장이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13일 “대선 주자들 평양행 유행이 북 협박 불렀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북한의 종북 논쟁 가세에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과도한 종북 공세가 북한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공존 주장까지 종북으로 모는 새누리당의 정략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양비론을 들먹였다. 그러나 뭐가 과도했다는 건지 안 밝혔다.

국회자율로 제명하라

한겨레도 13일 사실 ‘가당찮은 북의 이념논쟁 개입’에서 “우리 쪽 당사자들도 무분별한 종북 공세가 이런 개입의 빌미를 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20일 대선 후보의 안보관을 다룬 사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원칙 없는 대북 퍼주기는 북한 정권의 제네바 핵

동결 합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암 덩어리를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석기·김재연의 제명론에 대해 동아일보는 7일 사실 ‘국회의원 종북은 사상의 자유로 보호 못한다’에서 “두 사람이 제명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종북주의 국가관 때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主要紙 ‘민주당 종북옹호’ 질타 “부정당선 국회의원 제명” 촉구

문이 아니라 반민주적 선거조작이라는 부정행위로 의원 배치를 달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정치적 결정이 꼭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 의원의 국가관을 검증하는 것은 이해찬 후보의 주장처럼 매카시즘이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썼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진보당 발표는 당 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적 판단도 아니고 정치적 논란이 된 사안을 바탕으로 유권자가 선출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례 의원은 유권자 직선이 아니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

이해찬 北인권시각 큰 문제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이석기 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정파의 회원으로서 뽑힌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제명 찬성이 더 많다. 국회법 138조는 의원 30인 이상의 청구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임기초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라고 선언한다. 선서와 행동이 따로 놀 수는 없다.

이해찬 의원의 종북적 발언도 거센 질책을 받았다. 국민일보는 6월6일 ‘이해찬 의원의 한심한 북한인권 의식’ 사실에서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으며 유엔총회는 매년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며 대표적인 인권유

린 국가인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면서 유독 북한만 예외로 인정하려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이제 시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문화일보도 5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후보의 북한인권관은 종북이다’ 사실에서 “2400만 북한 주민이 아니라 이들을 압살하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독재 권력의 편에 서겠다는 종북의 논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인권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사실을 총리까지 지낸 인사가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 또 7일 ‘헌법정신 부정하는 국회의원 정당 용인할 수 없다’란 사실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에 반대하고 탈북자를 변절자로 부르는 것은 반헌법이다. 북한의 3대 세습 핵개발 인권유린 문제는 외면하면서 색깔론 공세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종북주의자나 그 아류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절대 이런 세력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판 직설적 표현

민주당의 종북성과 대선 전망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실을 3차례나 썼다. 5일 ‘북 인권 말하면 매카시즘이란 당에 정권 맡기겠다’에서 “이해찬 의원은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다른 후보들도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거나 입을 닫고 있다. 이런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도 좋을지 고민만 깊어 간다”며 매우 주관적인 표현을 했다. 또 “이 대표는 역색깔론 공세를 편 것이 지지층 결집을 불렀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이 대표가 진보당의 종북 세력까지 감싸며 ‘악질적 매카시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것은 총선 실패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해찬이 이끄는 민주당이 대선에서도 총선 참패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라고 썼다. 문화일보는 4일 “민주당 의원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20명, 구 반공법 위반자도 2명이다. ‘왕재산 간첩사건’(임채정 국회의장 보좌관 간첩 혐의)에서 보듯 보좌진들 중에서 검증이 필요한 인물이 수도룩하다. 임수경 의원 퇴출이 그 출발점이다. 탈북자와 북한 문제에 대한 당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당내에서 암약하는 ‘임수경류’를 찾아내 척결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민주당은 12월 대선에서 국민에게 집권 기회를 달라고 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5월31일 ‘노무현정권의 국보법 무력화가 종북 준동의 화근’ 사실에서 “‘국회의원 이석기’가 이적단체구성죄로 2년6월 실형이 확정됐지만 ‘국보법 폐지=역사적 결단’이라던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했다. 국보법은 보완·보강해야 할 안보형사법”이라고 주장했다. 6월7일 사실에선 “민주화보상심의위는 12년 국민 혈세로 종북 토양을 앞서 가꿔왔다. 보상법을 전면 재검토해 국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굶주림으로 내모는 호전적인 김씨 세습독재를 아무 비전도 가치관도 없이 옹호하며 휴전중인 분단국가의 안보를 분열시키는 세력은 민주평화개혁세력이 아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정치할 자격조차 없다. [4]

‘영조의 삶과 장수’ 조명

토요건강포럼 7, 8월엔 휴강

대한언론인회(회장홍원기)와 한국성과학연구소(소장 이윤수)가 매월 주관하고 있는 ‘토요건강포럼’이 지난달 16일 많은 회우들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렸다. 상반기 종강이기도 한 이번 ‘토요건강포럼’은 주제 다양화에 따라 역사문제를 다뤄 조선조 때 과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재위 52년 동안 18세기 조선을 중흥기로 이끌었으며 86세까지 장수했던 ‘영조의 삶과 장수’에 대해 역사해설가인 임한순 전 연합통신 외신

국장의 열강을 들었다.

임한순 강사는 강연에서 영조는 우리나라 역사상 어느 왕보다도 가장 불행했던 왕으로 어머니는 천민 출신의 무수리였으나 어느 날 숙종 눈에 띄어 영조를 낳게 됐고 이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됐지만 평생을 “나는 천민의 자식”이란 생각 때문에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왕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당시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어 정파싸움이 절정을 이룰때 탕평책을 써 과열된



임한순 강사의 강의를 경청하는 회우들.

붕당간의 경쟁을 완화했으며 이전의 어느 왕보다도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 조선시대 몇 안 되는 성군 중의 한 왕으로 오늘날까지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 강사는 영조는 가정 불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묵히 참아내고 오히려 정사에 열중하며 개인적으로도 소박하게 살면서 많이 활동했던 것이 장수의 요인이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한순 강사는 ‘영조실록’과 여러 서적에 나오는 영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영조의 사생활을 엿볼수 있다고 말했다.

영조는 식생활에 있어서 소식이(小食家)로 밥도 적게 담아라, 반찬도 몇가지 이상 상에 올리지 못하게

9면으로 이어집니다.

장수 프로그램 버릴 것과 지킬 것

지난 달에 있었던 ‘미디어생태계의 미래’ (21세기 방송·통신연구소 주최)세미나에서 한 방송학자는 IT산업의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생태계의 변화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라면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고 세미나 장을 떠나기도 전에 벌써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소비자의 시청행태도 기술의 변화에 못지않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인기 프로그램도 추락하기 마련이다.

특히 요즘처럼 시청률 1~2%에 사활을 거는 상업적 경쟁시대에 20~30년 장수하는 프로그램은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키려는 공영방송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20년, 30년을 지탱한 힘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 제작진의 창의성이 뒷받침되어 가능했을 것이다. KBS 뿐만 아니라 방송계를 통틀어 ‘전국노래자랑’ (1980년), ‘가요무대’ (1985년), ‘아침마당’ (1991년), ‘열린음악회’ (1993년)가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이다. 재원을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하는 MBC나 SBS는 프로그램의 존폐가 시청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변화가 심한 방송시장에서 장수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위의 네 프로그램중 ‘전국노래자랑’이나 ‘아침마당’은 같은 시간대의 타방송사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열린 음악회’와 ‘가요무대’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의 신선함과 정신이 퇴색하여 현상유지에만 급급한 제작행태로 낡고 방향없는 프로그램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열린 음악회’는 열려있는가?

‘열린음악회’는 다양한 장르, 다양한 가수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음악 쇼를 표방하고 있지만 20여년간 틀에 박힌 구성, 진행으로 버라이어티(VARIETY) 음악 쇼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90년대초만 하더라도 성악가가 대중가요가수와 함께 대중가요를 부르는 소위 CROSS OVER가 금기시되었었는데, ‘열린음악회’에서 서울 음대 박인수교수가 대중가요가수 이동원과 함께 ‘향수’ (정지용 작사, 김희갑 작곡)를 불러 클래식과 대중가요의 벽을 허문 것은 우리나라 가요사에 남을 사건이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서울 음대교수가 김현식이 불러 히트했던 ‘내 사

랑 내 곁에’를 연주해서 음악팬들을 매료시킨 것도 ‘열린음악회’에서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열린 자세와 새로운 시도가 있어 ‘열린음악회’의 가치와 존재를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질 향상에 계기를 만드는 새로운 시도나 조그마한

방송시평



정창기

·본보 편집위원
·전 KBS보도본부 보도실장

‘열린음악회’ 종합쇼 구실 못해 ‘가요무대’ 향수에만 젖은 인상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가수다’ 이후 몇몇 새로운 가수와 노래가 선보여 때로는 음악쇼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 가요 몇곡과 외국가요 한 두곡, 오페라 아리아 한 두곡을 별 흐름도 없이 나열하고 있다. 종합 음악쇼라면 소담게 오프닝과 클라이맥스를 치밀하게 구성해서 쇼의 흐름에 따라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흡입해야 하는데 쇼다운 감흥도 짜임새도 없어 지루한 느낌이 들게 한다.

‘호국보훈의 달 기획- 나라사랑 열린음악회’ (6월24일 방송)는 MC의 오프닝 멘트와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된 6·25관련 영상에서 호국영령을 기리는 내용이 잠깐 소개되었을 뿐 음악과 출연진은 호국보훈이라는 이 시간의 주제를 살리지 못한 산만한 구성과 진행이었다.

추억에 해매는 ‘가요무대’

1985년에 방송을 시작한 대표적 장수 프로그램의 하나인 ‘가요무대’ (월요일 밤 10시 방송)는 MBC, SBS, KBS 2세 채널이 드라마 미니시리즈로 사활을 걸고 싸우는 틈바구니에서도 8%내외의 시청률로 어느 정도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으나, 변화없는 구성, 천편일률적 진행, 출연 가수의 수준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중가요 프로그램으로서

빛’을 잃어 가고있다.

‘가요무대’ 홈 페이지에는 “잔잔한 향수와 추억이 담긴 전통가요의 명가”라고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방송된지 이미 30여년이나 흘렀는데 언제까지 “잔잔한 향수와 추억이 담긴 전통가요의 명가”로 남을 것인가?

1930~1960년대의 왜색가요 논란에 휩

크해서 크게 히트했다. 그때까지 이성애는 카펜터스의 노래를 즐겨 부른 팝송 가수였다. 일본의 한 음악관계자가 이성애의 노래를 엔카의 원류라고 해서 한때 일본 음악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어서 우리 가요를 왜색가요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낮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최근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로트’, 우리 대중가요를 새롭게 해석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현상은 우리 가요의 발전에 고무적인 일이다. ‘가요무대’는 향수와 추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귀중한 문화 유산인 우리 가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 가요에서 노랫말은 중요한 요소이다. 금년에 은퇴한다는 원로가수 패티 김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노래는 작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사의 내용이 좋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노랫말은 시인이나 드라마작가가 작사하여 수준높은 가사가 많다. 그런데 ‘명가사, 명가요’라는 주제로 5월21일에 방송한 ‘가요무대’는 그렇고 그런 가수만 출연시켰을 뿐 정작 이 주제의 주인공이라고 해야할 작사가는 보이지 않았다. 작사가가 출연하여 노랫말에 얽힌 얘기나 의미를 설명했더라면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빛났을 것이다.

MC 송해, 그리고 향수경, 김동건씨

KBS의 최장수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의 MC 송해씨와 ‘열린음악회’와 ‘가요무대’의 두 MC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 프로그램의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MC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보여 주고 있다. MC는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복돋아 주고 프로그램 사이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면서 출연자와 청중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데, ‘열린음악회’와 ‘가요무대’의 두 진행자는 관공서 행사의 사회자같기도 하고, 당부 말씀 하러 나온 담당자처럼 흥겨워야할 음악쇼 분위기를 살리지 못 하고 있다.

여성의 의상까지 언급해 미안한 느낌이지만 엄동설한이나 삼복더위, 실내나 야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입고 출연하는 어깨를 드러내는 의상은 의상코드에도 맞지 않다. 원로 디자이너 노라노씨는 옷을 가장 잘 입는 비결은 때와 장소에 맞게 입는 것이라고 했다. [4]

8면에서 이어집니다.

했고 술도 어쩌다 마셔도 적게 마시며 수시로 전국에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제사 때도 술 대신 식혜를 올리게 했다.

영조는 아주 검소해 침실엔 가구가 하나도 없었고 이불만 한 채에 옷도 여름엔 겹옷, 겨울엔 아무리 추워도 털옷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영조실록)

영조는 사치풍조를 막기위해 양반들

은 무늬있는 비단옷을 못입게 했으며 사대부 부인들의 머리치장(가채)도 금지하고 족두리를 쓰도록 명을 내리기도 했다. 가채는 현재로 치면 수천만원씩 들었다고 한다. 영조는 활동을 많이 해 선왕의 묘소 참배를 위한 능행이 잦았으며 쉬는 시간에는 민가를 돌며 백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 백성들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주기도 했으며 노동을 중시해 비만 오면 물이 넘쳐 피해를 입는 백성이 많아지자 지금

의 청계천에 준천(준설)사업을 벌여 잦은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던 백성들의 시름을 덜어주었는데 후대에 와서 이 공사가 현재의 청계천의 모습을 잡아놓기도 했다.

임 강사는 끝으로 “영조는 가정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검소한 생활, 많은 활동, 소식, 절주, 집필 등의 생활 자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수 하게 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자신

의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요건강포럼’엔 여느 때 보다 많은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이 참석,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으며 강의 1시간 내내 진지하게 경청했다.

월과 흑서기인 8월에는 회원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휴강하며 오는 9월에 개강한다. [4]

글·사진= 이보길 편집위원

“목숨걸고 지킨 나라 … ‘중북좌파’에

회우초대석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48)

인터뷰 : 글·사진

“동무! 나 국군이요”

‘칠흑처럼 캄캄한 밤. 高 哲 공작대장은 영흥만 호도반도 적진지 깊숙한 곳에 착륙했다. 북과공작원과의 접촉 장소인 해변 기슭 큰 바위에 몸을 숨긴 채 주변을 살폈다. 바닷가 바위 뒤에 검은 물체가 보인다. 권총을 빼든 채 낮은 포복으로 서서히 접근했다.

“동무! 야밤에 왜 여기에 서성거리우 까?”

“내래 영흥에 사는 농사꾼이우다. 소응진 딸네 집에 들렀다가 돌아가다 길을 잘 못들어 헤매고 있수다. 여기 당원증과 통행증도 가지고 있수다” 너털 너털 해진 농부 복장 조끼에서 종이쪽지를 내민다. 내무서원이나 보위부원으로 알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증명서다. 고 철 대장은 바짝 다가가 농부의 귀에 대고, “동무! 나 국군이요. 공군 특무대원이요. 걱정말고 오우다.” 농부(북과공작원)는 어리둥절해하며 우물거린다. “여기는 위험하니 저쪽 숲 속 해변으로 갑시다” 그제서야 반신반의하던 농부는 허리춤에서 신호용 플래시를 내보이며 “고맙수우다. 이렇게 위험을 무릎 쓰고 마중까지 나오다니 정말 고맙수우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바다를 향해 황색 플래시로 신호를 보냈다.

0시 10분. 작전시간 10분이 초과됐다. 이세환 분견대장은 육지에서 300m 떨어진 해상 전마선에서 고 철 공작대장과 북과공작원을 초조하게 기다리다 신호를 보고 황급히 해변으로 접근했다. 두 사람은 쏜 살같이 전마선에 올랐다. 북과공작원 귀환 작전은 무사히 끝났다.

‘동무! 나 국군이요’ (예서원/2004년)는 6·25 때 공군특무대 대북 첩보작전 요원으로 활약했던 李世煥 본회 원로 회우가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일 뿐 국가(國歌)가 아니다”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발언이 나온 지난달 15일 적 후방 깊숙한 원산 영흥만 모도와 함경북도 성진 앞 양도에서 첩보작전을 펼쳤던 이세환 회우를 만났다.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1호선 개봉역에서 전철을 탄 뒤 신도림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강남역에서 신분당선을 갈아타고, 정자역에서 하차, 다시 분당선으로 바뀌 탄 뒤 오리역에서 내려 기다리던 이 회우를 ‘접선’했다. “최근 ‘요도협착증’ 시술을 받아 멀리까지 오게 하여 미안하다”며 반긴다. 나중에 눈치 챘지만 훈장과 군 시절 비망록, 신문기자 시절 특종한 신문스크랩, 50년 간 모은 우표 등 보여줄 것이 많아 집으로 오라고 한 ‘작전’이었던 것 같다. 올해 여든 네 살. 딱 벌어진 어깨에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벽산아파트. 거실 벽에는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목에 걸고 찍은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다. 안방 액자에 넣어 걸어놓은 훈장도 당시의 공훈을 기리며 금빛으로 빛난다. 금성화랑무공훈장은



이세환 원로 회우는 “목숨 걸고 지킨 나라인데 체제를 부정하는 중북 좌파 활동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한다.

6·25때 空士 2기로 入校 … 특무대 차출돼 사진기자로 수많은 특종 … 휴전선 횡단 공중

양도 분견대 설치 후 첫 침투공작을 성공리에 마친 1952년 10월 1일 통신문을 통해 알았다. 충무무공훈장은 휴전 후 원대 복귀하여 국군포로들을 신문하던 1953년 8월 15일 받았다. 첩보공작 공로로 특무부대원이 훈장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부대 안에서도 화제가 됐다는 것.

“死線넘나들며 첩보작전”

-첩보작전 특성상 비밀 유지가 의무인데 50년 만에 ‘동무! 나 국군이요’를 쓴 계기는?

“사선을 넘나들며 첩보작전을 펼쳤고 철 공작대원이 휴전으로 철수하면서 소식이 끊겨 생사를 몰랐어요. 50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분당 야탑 부근에 살더군요. 지척의 거리에서 만나지 못한 거죠.”

고 철 씨는 이 회우가 모도 분견대장 시절 현지에서 특채한 공작대원이다. 가족이 모도에 있어 신원이 확실하고, 학력도 있고 판단력과 통솔력이 있어 보였다. 분견대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첩보작전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 고 씨의 아들은 공군 대령(공사 26기)으로 아버지가 6·25 때 참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작원이란 특수 신분 때문에 아무런 인사 기록이 없어 6·25참전 사실마저 의심받는 것이 안타까웠다. 확실한 입증 자료와 증인이 있으면 ‘6·25참전유공자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일한 증인은 이세환씨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듣고 국가보훈처에 의뢰하여 수소문한 끝에 수원 보훈지청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

“고 철 씨는 대가나 보상을 받기위해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건 사실을 잘 알지요. 고 씨 부자를 만난 뒤 공군시절 서류가 담긴 상자를 꺼내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았어요. 고철 공작대장이 캘빈소총을 들고 있는 당시의 빛바랜 사진과 비망록 ‘追憶’을 발견했어요. 고 씨 부자를 다시 만나 전해주며 ‘인우보증’을 써 주었습니다.”

-고 철씨가 ‘6·25참전유공자증’은 받았

나요?

“2003년 6월, 고 철 씨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곧바로 만났어요. 그는 지갑에서 하늘색 ‘참전유공자증’을 내보이며 ‘이제 가족과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감격스러워하기에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전쟁이 끝난 뒤 50년, 유공자증을 신청 한지 1년 2개월 만에 고 철 씨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 일을 계기로 첩보공작의 실체와 공작원들의 활동상을 기록으로 후대에 남기려고 집필하게 됐다”고 한다.

-그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戰時에 첩보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목숨을 건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지요. 모도 분견대장 때 고 철 공작대장과 서울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섬을 잠시 비운 사이, 북과공작원 침투작전에 투입된 나의 부하 4명과 북과공작원 1명이 침투지점에서 인민군에게 발각되어 총격전을 벌이다 전사했어요. 가족같이 지냈던 대원들을 잃은 슬픔과 충격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고, 그분들

에 억장 무너진다”

李世煥

- 전 한국일보 기자
- 전 한국경제 편집부국장
- 전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6,7대)

사진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의 영전에 바친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양도 분견대장 시절, 양도에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이다. “거센 파도로 급수 VP 보트가 들어오지 못해 C 레이션으로 끼니를 때우고, 비오는 날이 샤워하는 날이었다”고 열악한 전시 환경을 털어 놓는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초소를 지원한 동기?



50년간 간직해온 6·25 첩보작전시절의 비망록 ‘追憶’. ‘동무! 나 국군이야’ 집필의 주요자료가 됐다.

첩보작전 벌여 중촬영 큰 감명

“청주사범학교 6학년 졸업반 때 6·25가 터졌어요. 휴교가 되고 피난길에 오르면서 자원입대를 생각했고, 마침 공군 제2기 사관후보생 모집 공고를 보고 원서를 냈어요.” 합격통지서를 받고 1951년 1월 8일 대구 칠성초등학교로 이전한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입대와 동시 다음날 작전상 공사가 제주도 모슬포로 옮기면서 LST를 타고 이동했다. 기초 군사훈련을 받던 2월 초, 입대 1개월 만에 공군 특무대로 차출돼 특수 교육을 받았다. 6월 중순 영흥만 원산 앞바다 여도의 공군 첩보작전요원으로 임명됐다. 공군 조종사의 꿈은 무산된 채 전선을 누비다가 1956년 5년 8개월 만에 제대한다.

창공을 날아 현장 취재

이세환 원로 회우는 1958년 연합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 한국일보 기자와 경향신문 차장,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 등을 지냈고, 한국사진기자회 6, 7대 회장을 역임했다.

-사진기자는 자원한 것인가?

“청주사범 시절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아 사진 찍기를 좋아했고, 현상과 인화를 했었지요. 공군 정보교육 때도 첩보활동에 필요한 커리큘럼 가운데 적외선 촬영 등 사진에 관련된 과목은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기자가 적성에 맞아 연합신문사에 들어가 사진부를 자원했습니다.”

신문기자 시절로 화제가 이어지자 안방으로 들어가 신문 스크랩을 가져온다. 누렇게 퇴색한 신문은 가랑잎처럼 부서질 것 같다. 스크랩은 빈틈없는 첩보작전처럼 꼼꼼하고 치밀하다. 분견대장 시절 ‘비망록’은 50년 만에 저서로 빛을 보았다. 부서질까봐 조심스럽게 넘기는 스크랩에는 많은 특종들이 담겼다. 공군 출신답게 창공을 날며 취재한 기사가 눈길을 끈다.

‘정조 속초 앞바다서 참사, 어부 31명 행방불명’ 한국일보 1962년 1월 3일 석간 1면 톱 기사다. 이세환 기자는 신정 연휴를 맞아 중앙청 부근 집에서 모처럼 망중환의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2일 밤 속초지국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장기영 사장에게 “경비행기로 현장취재를 떠나면 3일자 석간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장 사장은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며 “잘 다녀오라”고 격려했다. 3일 새벽 4시 이강훈 조종사와 함께 수색비행장으로 갔다. 흑한에 얼어붙은 엔진을 연탄불로 녹여 2인승 14 경비행기를 타고 이륙했다.

대관령을 넘으니 검은 바다가 포효하고 속초 앞바다는 인산인해다. 저공비행으로 고공촬영을 한 뒤 대포리 비행장에 착륙했다. 미군 지프를 얻어 타고 속초항에 도착하니 아비규환이다. 1군 사령관의 브리핑을 듣고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양양군수를 통해 인명 피해와 침몰 어선 숫자를 파악했다. 기수를 돌려 서울로 향했다. 사진에 연락하여 중앙청 광장에 신문사 차량을 대기시킨 뒤 필름과 기사를 돌돌 말아 비행기에서 떨어뜨렸다. 낮 12시 40분. 3개면에 걸쳐 대서특필됐다. 장 사장은 기분이 좋아 “2000부를 찍어 현장에 무료로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신문을 싣고 경비행기가 다시 속초에 갔을 때 타사 취재차량들은 대관령을 넘고 있었다. 특종상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경향신문 1965년 1월 1일자 신년 특집에 ‘휴전선 155마일’ 사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서해 강화도서 동해 속초까지 휴전선을 고공 촬영한 표제의 사진(도비라)이다. 공군 동기생인 金東鎭 소령이 조종하는 T33에 동승하여 4만5000피트 상공에서 촬영하여 세켓을 이어 붙였다. “요즘이야 위성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만 그 때만해도 휴전선을 카메라에 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회고한다.

4·19와 5·16 격변의 현장, 정치강패 이정재가 사형집행을 사흘 앞두고 가족과의 마지막 면회하는 모습(한국일보 1961년 9월 16일자), 이 중령 일가를 무차별 살해한 고재봉의 사형집행을 포착

2행자의 건강 리포트 ⑤

장수와 단명

어떤 사람이 장수하고 어떤 사람이 단명할까. 장수하는 사람과 단명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잘 알려진 태평양건강연구소(Pacific Health Reserch Institute) 브래들리 윌콕스 박사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40년 동안 50줄에

있는 5,820명을 대상으로 일찍 사망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전향성 추적조사(Cohort Study: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를 통해 다음 9가지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아냈다.

①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 ②혈당이 높은 사람 ③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④혈압이 높은 사람 ⑤악력이 약한 사람(운동이나 일을 적게 하여) ⑥담배를 피운 사람 ⑦과음을 하는 사람 ⑧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 ⑨혼자 사는 사람(미혼이나 이혼 등)이다.

이상의 9가지 중 ①, ②, ③번은 잘못 된 식습관에 의한 것 ④, ⑤번은 평소에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해온 경우 ⑥, ⑦번은 본인이 선택한 나쁜 습관에 의한 것 ⑧번은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⑨번은 마음의 불안과 관련된 문제이다.

브래들리 박사는 이들 9가지 특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망 확률이 높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및 혈당을 잘 관리하면 할수록 오래 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밖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코호트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 브래들리 박사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도 수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흡연과 운동부족이었다.

성격과 질병과의 상관성을 장기간 연구한 결과 낙천적인 성격이 장수에 크게 도움을 준다는 것과 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비교적 수명이 짧은 것은 과도한 운동 때문이며 과거 농부들의 수명이 짧은 것도 과도한 노동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려졌다. 최근의 연구에서 대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에서 사는 사람이 더 장수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장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에 달려 있음을 말해준다. 젊어서부터 식생활을 포함한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양식이 장수의 지름길이자 비법이란 이야기이다. [4]

한 ‘인간을 죽이지 않고, 죄를 죽였다’는 사진(한국일보 1964년 6월 10일자) 등 많은 특종으로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主思派들의 국회 입성과 종북 좌파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反共이 國是입니다. 공산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전선을 누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從北보다 從美가 더 문제라는 세력들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인지 되묻고 싶어요. 체제를 부정하는 그들의 의식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광화문에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만세 부를 사람들이 수도룩할 겁니다.” 6·25 참전 노병의 언성이 높아진다.

-종북 좌파가 수면위로 떠 오른 이유는?

“가능한 한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을 ‘보수 꼴통’으로 폄훼하며 오늘날 이 만큼 살게 된 것조차 모르고 있어 안타깝습니

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퍼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 돈으로 북한은 핵개발을 했잖아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동안 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사건들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여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꼴이지요”

-대안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옛날처럼 공안정국을 조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MB 정부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강력하게 법집행을 해 달라는 주문이다.

보건사회부 출입 때 이화여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하고 아동복지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金龍淑(78) 여사와 1962년 결혼, 슬하에 2남 1녀. 장남 내외와 대학생인 손녀 2명과 함께 산다. 핵가족 시대에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4]

백령도... 철의 삼각지... 전투훈련장...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대한언론인회의 6월은 호국보훈과 국가안보 현장에 있었다.
통한의 이 6월에 대한언론인회의 원로회원들이 현충원 참배를
하고 6·25의 격전지였던 백마고지와 편치불, 그리고 화약고인
서해5도의 최북단 백령도를 찾은 뜻이 무엇이었든가.

우리 국군의 승진훈련장에서 ‘통합화력전투훈련’을 참관하면
서 국가안보의 첨병인 국군용사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이유는 또 무엇인가.

여기서 저 3대세습 북한 전쟁광들의 만행을 되새기며 우리
군의 확고한 국토방위 태세에 안도할수 있었던 게 그 뜻이고 이
유였다. 용기없는 평화와 자유를 누릴수 없다는 이 6월의 교
훈이었다.

백령도 시찰

대한언론인회가 서해5도 최북단의 백령도를 찾은 것은 6월18일이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선 일행이 인천부두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오전8시20분, 우리는 8시50분에 백령도로 가는 여객선(마린브리지)을 승선케 예약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바다를 뒤덮은 안개가 눈에 들어온다. 터미널 전광판에 <출항연기>가 뜨고 해무로 인한 출항 불가능이 아나운스된다. 서해의 모든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발이 묶이는 것이다.

1차(11시 대기)가 나오더니 다시 <13시 대기>가 전광판에 뜬다. 어휴~ 4시간을 비좁은 여객 대기실에서 지치는 일행이다. 일행가운데는 전에 백령도에 가기위해 한차례 또는 두차례 이 터미널에 나와 기다리다가 <통제(오늘 출항 못한다는 뜻)>로 발길을 돌렸던 ‘백령도 재수, 삼수’ 경험자도 있었다. 지난4월에는 30%가 <통제>였단다. 점심을 먹고 기다리는 오후시간이 더 지친다. 발길을 ‘강화도로 돌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가 왜 백령도엘 가자는 것인데...기다려 보자”는 세력이 더 강했다.

백령도 지킴이의 호령

낮 12시50분. 스피커가 울린다. “바다의 기상상태가 좋아져서 백령도 가는 여객선이 오후1시에 출항합니다.” 환호가 오른다. 승선출구의 줄이 길어진다. 이 긴줄에 육군사관학교 3학년생 단체가 보인다. 믿음직한 모습의 생도2명에게 말을 걸어봤다. “백령도에 훈련 가시는가?” “예. 저희 교과과정에 국토장정 훈련이 있습니다. 1학년때는 울릉도와 독도, 2학년에는 제주도, 그리고 3학년은 백령도 훈련입니다.” “그럼 4학년에는...” “예! 그랜 북한을 가야죠...” “그 높은 기상을 잘 살리시게...”

오후1시 출항. 장봉도를 옆으로 지나고는 망망한 바다. 배안에서 백령도 부대의 해병용사를 만난다. 하영석, 김규태 일병, “휴가 귀대하십니까?” “교육훈련받고 귀대합니다.” “백령도 근무 불만 없으신가?” “없습니다. 남은 9개월도 계속 근무 할것입니다.” “북 위협이 두렵지 않은가?” “대비를 잘 하고있

습니다. 최북단 전방근무 사명과 금지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막강 해병이었다. “훌륭하오” 굳게 손을 잡아주었다.

시속30~40노트의 항해속도. 바다 어느지점에서는 핸드폰이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뚜우~’ 뱃고동소리가 울리더니 백령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5시55분. 백령도 용기포 선착장에 도착한다. 인천서 173Km의 항로. 소청도, 대청도를 거쳐왔다. 평화로운 마을들을 지나 바로 ‘안보현장-체험교육장’이다.

국가 안보, 백령도 지킴이

교육장 스크린에 북의 만행, 연평도 포격 당시의 화면이 재생된다. 당시 서정우하사의 어머니의 육성이 흐른다.

“...내가 없는 두 번째 겨울을 보내는 이 엄마 마음을 네가 알겠느냐... 김정일이 몇 년만 일찍 죽었더라면...” 이어지는 안보강의. “한민족이긴 하지만 휴전이후 721건의 대남도발을 한 김일성 집단인 주적에 대한 확고한 정의와 분명한 대응을 해야한다. 국토분단, 민족분단. 정치분단의 한반도 현실에서 국가3대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할수있는 국가안보를 위해 여기 백령도지킴이인 국군용사들이 있고 여기에 국민의 단결과 성원이 함께 해야 한다”는 열변이다.

진촌리 관창길에 있는 숙소에서 1박. 다음날인 6월19일, 새벽같이 기상, 숙소 근처의 바닷가로 나가본다. 바다안개가 짙었다. 해안방어진 철책을 경비하는 해병대 병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안개 낀 북녘해면을 응시하는 초병의 시선에 위엄이있다. 그 병사머리위로 갈매기떼가 함께한다. “끼욱...깨욱...”수백마리,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무리들이 공중 무용이다.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가. 이지역이 이들의 서식지인가 보다.

고즈넉한 마을길을 걷는다. 평화롭다. 논이 벼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새벽같이 발일을 하는 아주머니를 만난다. 밭에다 검은 비닐을 씌우며 호미질을 한다. “뭘 심으세요?” “녹두를 심으려구요” “여기두 가물지요?” “엇그제 비가 좀 왔어요. 여기는 괜찮아요” 면사무소 관계자도 백령도는 농사 물길 등 시설이 잘되어 있고 비도 자주 와주는 편이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은 본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해병 0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흥원기회장이 장병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라고 했다. 백령도의 연간 강우량은 755mm. “아주머니, 빨갱이들 대포 쏠까봐 무섭지 않으세요” 좀 뒤틀린 질문을 해본다. “우리 해병대 아들이 잘 지켜주고 있어요” 어렵지않게 대답이 나온다.

아침7시, 각자의 식판식사를 한뒤. 대기한 ‘까나리관광’의 버스에 오른다. 까나리는 백령도의 특산물이다.

백령도에 온 뜻, 본격 안보현장을 간다. 아스팔트가 되어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따라 해병0여단을 찾아간다. 가는 길의 해안 농도가 풍요롭다. 이제 거둬 일손을 기다리는 찰보리밭의 황금물결. 고추농사로 부자가 되기도 한다는 비닐하우스의 고추농사가 싱그럽고 고구마 줄기가 싱싱하다. 백령도 백고구마는 수확전에 육지의 임자가 정해진단다. 밭두렁의 옥수수대도 부쩍 곧다.

가는길에서 올라다 보이는 공군레이더기지, 해군시설도, 그리고 적의 공기부양정 침투에 대비하고 있다는 아파치 헬기 기지도 믿음직하다.

벼농사가 생각보다 많다. 하기는 간석지사업으로 여의도의 1.7배 논이 조성됐다니 그럴게다. 그래서 모두 기계영농이었다. “백령도는 쌀 등 주곡은 자급이 되고 오히려 벼수매를 통해 수출

을 하는셈”이라는 면사무소 이야기다.

두동강이 났던 국방

서해의 해금강이라는 두문진을 지난다. 고려때 기록에 ‘늪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절경이다. 그리고 연화리에있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언덕을 오른다. 자세를 가다듬는다. 바닷가 언덕에 세워진 불멸의 충훈들. 8.3m의 삼각충훈탑과 탑신에 돋을새김된 용사의 얼굴들, ‘바다보다 푸르렀던 그 이름들을 가슴에 묻습니다.’ 46용사의 이름중 같은 이름인 ‘이상민 병장’을 가려 써놓느라 (88) (89)생년을 기록하고 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라’ “묵념” 우리 원로회원이 구령을 한다. 한심하게 당했던 그리고 무자비하게 두동강이 났던 두해 전의 우리 현실을 깊이 되새긴다. 분노와 다짐을 엮는다. 위령탑에서 저만치에 있는 용틀임바위 전망대로 올라본다. 천안함 사건이후 인양될때까지 50여일동안 3백여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2Km전방 해상의 현장을 향해 망원렌즈카메라를 뻗쳐놓고 취재경쟁을 했던 곳을 대선배 기자들이 찾아보는 것이다. 여기도 갈매기떼가 날고 있었다.

0여단방문 약속시간을 맞추며 해안

대한언론인회 ‘안보현장’에 서다



뼈대만 남은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기념촬영.



통합화력 시범훈련을 참관하고 기념촬영.

일주도로를 계속 달린다. 백령도 특산물인 까나리액젓 공장과 화력발전소도 지난다. 이 발전소 전기로 섬 전체에 충분히 공급을 하고있다는 발전소 관계자의 말이다. 여름에는 10만Kw, 겨울에는 13만Kw정도의 소요란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시작되는 땅

드디어 해병0여단 정문을 들어선다. 부동의 병사가 거수경례로 맞는다. 거수로 답례. 일행중 해병대출신들의 어깨가 으쓱인다. 여단사령부를 지나 흑룡대로를 따라 관측고지에 오른다. 0여단의 별호가 흑룡부대. 청룡, 황룡, 적룡, 백룡중에서 흑룡은 가장 북쪽에서 용맹스럽게 떠오르는 기상이란다.

백령도의 최고봉, 184m 관측고지의 브리핑룸에 앉는다. 관측고지의 앞쪽이 북위38도선의 해수면, 브리핑룸 중앙에 주변지형과 해면의 모형이있고 앞면 유리너머로는 북한땅이 멀리보인다.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적의 해안포대의 거리 17Km. 저 건너편 황해도는 곡창지

대로 부유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매년 수천명씩의 굶어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탈북자의 증언이니 놀랍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단참모가 상황설명을 한다.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완벽한 대비를 하고 있다. 흑룡부대 중심의 공·지·해 협동작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단호하다. 넘치는 자신감이다. 이어서 브리핑장교의 브리핑 붐이 연평, 대청해전, 그리고 천안함 피침지점과 연평도가 포격당하던 상황의 모형을 짚어주었고 적의 해안포대상황과 적의 비행장위치와 정보를 브리핑한다. 이어서 DVD화면, 실전과같은 합동훈련의 모습과 최강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병대의 부대관리도 보여준다. “이곳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시작되는 곳, 우리는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서지도 않는다” 흑룡부대는 조국의 총끝이고 칼끝이라고 알려준다.

다시 참모장. “또 다시 적의 도발이 있으면...” 이 질문에 즉답이 단호하다. “즉각 대응 시스템을 확보 하고있

다.” 흑룡부대를 비롯한 서해5도의 지휘관, 아니 전군의 지휘관과 장병들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명령을 잊지않고 있을 것이다.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연평도에 갔을때 “쏘까요? 말까요? 묻지말고 자동응징한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때까지. 표적은 뭐냐? 북의 도발원점, 지원세력까지다”라고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한 명령을 했었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경비정의 선제공격습공격으로 우리 해군의 경비정인 참수리호가 피격되어 6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었던 분통 터지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 비극이 당시 김대중정권때의 대북유화정책으로 우리 군 지휘부가 이 ‘유화’에만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다는 지적이어서 그렇다.

당시 우리 군 정보부대가 북한의 동정을 파악해서 상급부대에 보고했으나 묵살되었다는 사실들도 뒤늦게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시간 흑룡부대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의 북한도발이 서해5도에 집중되어왔다는 것과 이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있다는 확인이었다.

서해5도에대한 도발을 보면 *1999년 6월의 제1연평해전(해군7명부상) *2002년 6월의 제2연평해전 *2009년 11월의 대청해전(NLL을 침입한 북한함정이 선제공격해왔으나 우리척 대응으로 선체가 반파된채 도주) *2010년 3월 천안함 피침 *2010년 11월 연평도에 무력공격(해병2명 전사, 민간인2명 사망)

작전시설 견학-실전 느낌

관측고지의 브리핑이 끝난뒤 작전시설에 대한 견학이 계속되었다. 담당장교는 우리일행의 ‘고령’을 우려해서 작전시설 견학은 생략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했으나 “우리가 백령도에 온 뜻이 뭘데...”라는게 다수였다.

작전시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실전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여기서도 막강한 국군통수권자였던 박정희대통령의 치적을 볼 수 있었다. 이 작전

시설도 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것이다, 군사기밀사항들이어서 여기에 더 쓰지않음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작전시설을 돌아본후의 마음은 안도였다. 최북단 백령도는 흑룡부대를 중심으로 합동방어작전이 철통이라는 믿음이 새삼 새로워지는 것이었다. NLL 부근에 중국어선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최근의 백령도 해역에서 해양경찰로서의 큰 상황은 없다고 했다.

지금 자족의 흰 날개 섬

백령도-동경124도53분 북위37도52분, 지금 행정구역은 인천직할시 옹진군 백령면으로 연화, 가을, 진춘, 북포, 남포리의 5개리로 되어있다. 흔히 백령도의 위치를 38도 이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면적 51.09평방킬로미터. *인구 5천 200여명, 이곳은 여름에는 전입 인구가 늘고 겨울에는 좀 주는 경향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군병력은 포함되지 않음) *초등학교 2개교, 중 고등학교 1개씩이 있다. 학생수는 중학교 94명, 고등학교 98명인데 고교생의 대학진학에는 여러 가지 배려와 혜택이 있다.

까나리액젓, 흑염소엑기스, 약쑥이 특산물이고 해산물도 풍부해서 담수호등의 민물고기는 먹지 않는다는 안내인의 말이다. “백령도 도민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는 보건소관계자의 말이었고 “유사시 주민 대피시설도 이제 잘되어있고 대피훈련등도 계획대로 되고있다”는 전반적으로 자신있는 말들을 해주고 있었다.

백령도에는 섬북쪽 인당수에 효녀 심청의 전설이 있고 여러개의 천연기념물이 있는 명승지로도 꼽을만하다.

진춘리의 조개무지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대량 출토되어 일찍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고 국내 유일의 점박이 물범 서식지도 있다. 선착장 가까운 곳의 사곶해욕장은 길이3Km, 폭 200m의 고운모래사장인데 이모래의 지반이 단단해서 차도로도 이용되고 필요시 비행기 이착륙도 가능하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함께 세계에서 2개뿐인 천연비행장 해수욕장이다. 천연기념물 391호. 백령도는 우리나라 14번째의 큰 섬이었는데 간석지사업으로 땅이 커져서 지금은 8번째 큰 섬이란다.

고구려시대에 벌써 곡도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섬은 고려때(1018년) 백령도로 개명이 되었고 후삼국때는 당나라로 가던 해상교통 요지였다. 해방전에는 황해도 장연군이였다가 광복후 경기도 옹진군이었고 1995년 지금의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에 이르고 있다.

귀로의 다짐

돌아 올 배가 떠나는 옹기포 선착장 근처에서 황해도식이라는 밀메밀칼국수를 점심으로하고 오후1시 출항, 여객선(데모크라시5)에 부리나케 오른다. 오늘 군사작전같은 시간을 가졌다.

14면으로 이어집니다.

13면에서 이어집니다.

납씨 채청. 올때의 기다림없이 정시 승선, 출항도 행운이라 했다. 뱃고동이 길게 울린다. 하얀 날개 섬을 뒤돌아보며 ‘대한민국 주권의 시작점’, 백령도가 곳곳함을 칭찬해준다.

그동안 우리는 ‘제2의 6·25는 있지만 제2의 9·28은 쉽지 않을것’이라고 우려와 탄식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수치스럽고 한스러웠던 6·25, 다시 ‘제2의 6·25는 없다’는 신념에 살기로 했다. 중복분자들, 그들은 머지않아 소멸될것이 아닌가.

과도인가. 배가 조금 흔들린다.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확실한 지킴이를 만나고 돌아오는길.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꼭 짚이 확인할 수 있었다.

글·김은구(본회회장상담역)
사진·이종기(전 서울신문사진부장)

철의 삼각지 방문

프레스클럽과 대한언론인회(회장 홍원기)회원 100여명은 지난 6월 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주관으로 강원도 철원지역을 탐방했다. 때마침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철원지역을 탐방하니 감회가 남달랐다. 한반도의 심장부이기도한 철원은 6·25 최대격전지 백마고지를 비롯, 제2땅굴과 공산치하에서 주민들이 혹독하게 고문을 당했던 노동당사가 있어 안보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후삼국시대 태봉국의 도읍지로 고구려인의 웅장한 기상과 유서 깊은 문화유적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고 한탄강계곡의 맑은 물, 금학산, 명성산 등과 어우러져 절묘한 자연경관에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도 유명하다.

“東州(철원)밤 겨우 지새고 북관정(北寬亭)에 올라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 보일 것도 같구나. 궁왕(弓王) 대궐 터에 오작(烏鵲)이 지저귀니, 천고흥망(千古興亡)을 아는가 모르는가.” 조선조 송강 정철이 선조 13년(1580년)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관동지방을 기행 할 때 철원의 궁에도성 터를 둘러보고 감회를 읊은 ‘관동별곡’의 한 대목을 떠올리며 철원에 도착하니 오전 10시 30분, 기다리던 미모의 철원군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세 명(이선희 김종화 선우숙)이 반색을 하며 반긴다.

박승일 대령 기린 승일교

해설사가 처음 안내 한곳은 삼부연 폭포, 사계절 마르지 않는 물과 기이한 바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물 떨어지는 곳이 세 군데 있는데 그 모양이 가마솥 같다하여 삼부연이라 불려진다. 이곳에서 용이 승천 했다는 전설도 흥미롭다. 삼부연 폭포와 고석정 중간쯤에 승일교가 보인다. 옛 철원의 관문이 기도한 승일교는 공산치하이던 1948년 북한이 주민을 강제 동원해 이 다리의 절반을 놓았을 때 6·25전쟁이 터졌다. 이후 미군과 아군이 나머지 구간을 연

결한 남북합작 다리다. 현재는 낡아 못쓰게 돼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승일교라는 이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승(承)자와 김일성의 일(日)자를 합쳤다는 설이 있으나 6·25전쟁 당시 한탄강을 건너 북진 중 전사한 고 박승일(朴昇日) 대령을 기리고자 이름 붙여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내외 역사 지리에 밝은 임한순회우도 차안에서 승일교의 내력을 잘못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 이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승일교 바로 옆에 새로 건설한 한탄대교를 건너면 임격정의 전설을 간직한 고석정에 이른다. 신라 진평왕 때 바위 위에 정자를 짓고 고석정이라 이름 붙였다 하나 지금 그 자리엔 소나무만 바위에 뿌리를 내린 채 외로이 서있다.

빼대만 남은 노동당사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고석정을 둘러본 뒤 노동당사로 향했다. 북한이 1946년 초에 착공하여 연건평 580평규모의 순시멘트벽돌로만 지어진 3층 건물로 한국전쟁 중 내부 벽체 대부분은 파괴된채 빼대만 남아 있다. 총 포탄자국으로 외벽이 곰보가 된 건물 안을 들여다보니 공산치하에서 모진 고문으로 숨겨간 주민들의 통곡소리가 들리는 듯 모골이 송연해진다.

건물 왼쪽 근처엔 철원경찰서 건물터가 보이고 그 지척 철원소학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준하 원로회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표지판을 바라보고 있다. 김준하 원로회우는 1946년 배재중학을 다닐 무렵 하숙비를 타러 이곳 고향 집을 찾을 때마다 수 십리를 걸어서 서투른 영어와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미군과 소련군초소를 번갈아 통과했던 일이 꿈만 같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철원평야 빼앗긴 김일성 통곡

노동당사를 뒤로하고 찾은 곳은 백마고지 전적기념관 위령비. 다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었다. 위령비를 지나 100여미터 거리의 언덕을 오르니 날씨가 청명해 저 멀리 백마고지가 선명하게 한 눈에 들어온다.

백마고지는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신명리에 위치한 해발 395m의 조그만 야산으로 ‘철의 삼각지’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철의 삼각지(Iron Triangle Zone)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밴 플리트 장군이 작전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만든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한국전쟁 중에 국군 보병 9사단과 중공군 제38군단의 3개 사단이 10일 동안 8차례나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던 끝에 9사단이 승리한 전투지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 1만여 명이 전사 또는 포로가 되었으며, 국군 9사단장병도 무려 3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설사중 한명인 이선희씨의 선친도 작년에 타계하셨지만 이 백마고지전투에 참가했다며 눈시울을 적신다. 철의 삼각지에 위치한 철원평야는 김일성이 애지중지했던 곡창지대이면서 전차가 기동할 수 있는 핵심 길목이었다. 김일성은 이 백마고지 일대의 땅을 빼앗기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했다고 한다.

금개구리 출현 도피안사

백마고지 위령비에서 10여분 거리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피안사(到彼岸寺)가 있다 통일신라 경문왕 5년(865년) 도선국사가 높이 91cm의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을 제조, 철원을 울리리에 소재한 안양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여러 승려들과 같이 가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 이 불상이 갑자기 없어져 그 부근 일대를 찾다가 현 위치에 그 불상이 안좌한 자세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조그마한 암자를 짓고 이 불상을 모셨다 한다.

당시 철조불상이 영원한 안식처인 괴안에 이르렀다 하여 절 이름이 도피안사로 명명 되었으며 절 내에는 도선국사가 제조한 국보 제63호인 철조비로사나불좌상과 보물 제223호로 지정된 높이 4.1m의 화강암 재료로 된 3층 석탑이 보존되어 있다. 얼마전 이 석탑 안에서 금개구리가 출현해 화제가 된 일 이 있다.

중복주의자가 봐야할 안보현장

포천을 거쳐 서울로 오는 길엔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양주시청 근처에 자리한 ‘닭 한 마리’ 집에서 갖은 양념 소스에 삶은 닭고기를 찍어 먹는 맛도 일미였지만 칼국수를 들며 식도락을 만끽한 것은 생각할수록 군침이 돈다.

6·25 북한군 남침으로 전국토가 폐허로 변했던 그때로부터 62년, 우리가 철원 땅에서 체득한 교훈은 그곳의 값진 문화 유적과 자연경관을 길이 보존하는 일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은 철통안보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지키고 다져야한다는 신념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철원이 안보관광지로 각광받는 이유를 바로 일깨워줄 대상은 바로 중복미망에 사로잡힌 일부 철부지 정치인들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뜻 깊고 유익한 철원지역 문화탐방행사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글·정운종(본회 상임이사)
사진·이학성(뉴스타임 편집국장)

통합화기훈련참관

대한언론인회는 국방부 초청으로 6월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통합화력전투훈련을 참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흥원기회장을 비롯, 회원 58명이 서울용산구 삼각지에서 국방부 제공 버스 두 대에 나눠타고 참석, 전투훈련을 참관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6·25전쟁 62주년을 맞아 마련한 통합화력전투훈련에는 130mm 다연장로켓과 K1A1 전차, F-15K 전투기, AH-64 아파치 헬기, M2A3 전차 등 한미 양국군의 첨단 군사장비가 대거 동원됐다. 육군 5군단 예하 1기갑여단, 5포병여단 등 14개 부대와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6개 부대, 공군 16개 편대, 미군 아파치 1개 부대 등 38개 부대, 2천여명의 병력도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훈련에서는 지상과 공중에서 3천여발이 넘는 각

종 포탄이 쏟아져 간담을 서늘케 했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소아이)와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력화한 경공격기(T/A-50)가 처음 참가, 눈길을 끌었다. 육군의 신형 대포병레이더(아서)와 군 위성통신체계, 원격 사격이 가능한 K-4 무인기관총 등도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됐다.

1부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내 아군 초소에 대한 적의 총·포격 도발시 대응 절차, 화력 도발 탐지와 대응방법, 합동전력 동원 절차에 관한 전투장면이 펼쳐져 실전을 방불케 했다. 북한군 최전방 초소(GP)에서 우리 군 GP를 향해 기관총과 직사포 공격을 가해온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20mm 벌컨(사정 1.8km) 240발, 30mm 비호(사정 3km) 80발이 첫 포문을 열었다. K-9 자주포(사정 40km) 36문에서 66발, 130mm 다연장로켓(사정 30km) 27발이 눈깜짝할 사이 포신을 벗어나 훈련장 표적에 명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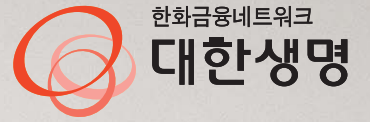
4대의 F-4E 전투기에서 일반폭탄 20발을, 3대의 KF-16 전투기에서 대전차 확산탄 12발을, 3대의 F-15K에서 대형 폭탄 4발을 각각 투하했다. 미군 AH-64 아파치헬기 4대도 동원되어 로켓 60발과 30mm 기관포 600발을 발사해 북한군 전차 표적을 흘트려 놓았다.

2부에서는 6·25전쟁과 같은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상해 한미 연합 전력이 이를 저지 격퇴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휴전선에 침범하는 북한군을 저지코자 K-9 자주포와 130mm 다연장로켓, K1A1 전차 등 육군의 주력 화기가 동원됐다.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가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사정 278km의 ‘슬램 이알’ 등 정밀유도무기로 후방의 증원부대와 포병부대를 타격했다. 무인항공기(UAV)가 공중에서 적의 피해 상황을 지상부대로 실시간 전송하자 전차와 장갑차, 공격헬기 등으로 구성된 연합 기동부대에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현대전이 첨단과학장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K1A1 전차와 미군 M2A3 장갑차가 포탄 80여발을, 아파치 헬기 4대에서 30mm 기관포 600발과 로켓 60발을 각각 발사하면서 적진으로 진격했다. T/A-50 경공격기가 적진에 일반폭탄 12발을 투하하고, 탱크 킬러로 불리는 미 A-10기 4대가 30mm 기관포 600발을 퍼부어 진지는 초토화됐다. 이어 공군 C130 수송기가 아군 진지에 탄약과 식량을 투하하고 진지 점령을 위해 특전사 60명이 강하하는 것으로 훈련은 끝났다.

훈련이 끝난 후에는 육군의 차기전차 흑표(K-2), K-21 장갑차, 다연장로켓(MLRS),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미군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 등 50여종의 각종 장비를 견학했다. 국방부는 이날 행사에 김황식 국무총 등 국내외 주요 인사와 안보단체, 각국 무관, 일반인, 학생 등 3천여명을 초청,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

글·최희조(본보 편집위원)
사진·국방부대변인실 제공



♪♪
콧콧 찢리는 인생들 Listen!
야구 관두면 뭐하고 살까 아내의 말에 **콧콧**
어째 공이 예전과 다르단 감독의 말에 **콧콧**
멀쩡하던 허리는 비만 오면 **콧콧**

대충대충 인생 살게?
콧콧 짚어 인생설게!



콧콧 짚어주는 인생설게
 **콧콧Life** 하세요!

문제안 원로회우 별세

한국 최초의 방송기자 문제안 원로회우가 6월 17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20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회우는 일본 메이지(明治)대 전문부 문예과를 졸업한 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6일부터 한 달 반 동안 경성중앙방송국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기자로 활동했다.

방송사를 그만둔 후에도 언론계에 투신해 1946년 7월 조선통신을 시



작으로 경향신문, 국제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을 거쳤고, 조선일보에서 사회부 차장과 체육부장을 지냈다.

6·25전쟁 때 종군기자로 과정을 자세히 보도해 1955년 금성화랑무공훈장을 받고 문화영화 시나리오상, 제18회 외솔상(실천부문)도 수상했으며 종군기 '남북 삼천리'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국문]

조동오 원로회우 별세

본회 원로 회우 조동오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25일 하오 2시30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 했다. 향년 82세. 발인은 29일 오전 8시.

조 회우는 1930년 3월 31일 서울에서 출생,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54년 조선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한 후 한국일보 사회부 부장 대우,



중앙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유족은 미망인 김혜희 여사와 장남 준구(한국레노버전무) 큰딸 윤정(동시통역사), 윤희(주부) 윤선씨(주부)등이 있다.

대한언론인회에서는 6월 27일 오후 3시 언론인장으로 추도식을 가졌다. [국문]

弔辭 언론인 - 한글운동가 큰 족적

홍원기(본회 회장)

존경하는 문제안 선생님!

이 무슨 천천벽력과 같은 비보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익장을 과시 하시며 후배들을 격려 해주시던 선생님이 졸지에 가시다니 저희들은 그저 망연자실, 말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가심에 삼가 명복을 빌며 졸지에 상을 당하신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선생님께서는 1920년 4월 9일 경성부 회동(현재 회현동)에서 태어나신 후 양정고등학교와 일본 명치대학 영화과를 졸업하셨으며 방송국 공채로 입사 하신 후 '아나운서'로 언론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언론계에 입문하실 무렵은 사실 어렵고 혼란스러운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경성방송국에 근무하실 때 광복을 맞이하시고 1945년 9월 제1방송을 한국어 방송채널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복 이후 국내 최초의 방송 취재 기자가 되신 후 많은 언론계 후배, 특히 방송인들이 추앙해 마지않는 빛나는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서울신문 종군기자로 활동 하신 일이라든지 1953년 정전협정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신 일도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선생님은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로 재직하고 계시던 1958년 8월, 정부수립10주년기념 사업으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며 '베를린에서 관문점까지 5만킬로 자동차 주파여행을 단행,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현배 선생과 함께 '한글운동가'로 한글학회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늘 올곧은 언론인으로서 우리 언론계는 물론 한글학계 어디에서나 존경 받는 선비로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생전에 나라와 민족



조사를 읽고 있는 홍원기 회장.

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바쁜 중에도 많은 저서를 남기시는 열정을 본보이셨습니다. 남기신 저서가 모두 독보적이어서 또한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선생님께서는 특히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참지 못하시는 꾀꿇한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신 '올바르고, 슬기롭고, 부지런하게'라는 가훈과 늘 좌우명으로 중시 하였던 '끝없는 전진, 끊임없는 투쟁'은 바로 선생님의 올곧은 삶을 웅변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행적을 남기신 선생님의 가심은 가뜩이나 원로의 목소리가 아쉬운 오늘, 우리 언론계로서는 큰 별을 잃은 충격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안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 가시는 저 하늘나라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편안한 세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부디 이 세상에서 갖고 계시던 일체의 미련일랑 떨쳐버리시고, 그리고 후고의 염려를 훌훌 털어 버리시고 인간의 마지막 생명이 영원히 잠드는 그 곳에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인들은 선생님의 영적인 삶이 항상 강령하시기를 빌고 또 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가심을 애도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국문]

弔辭 격동의 시대 법조기자 전설

성병욱(본회회우·전 중앙일보주필)

법조기자의 전설이셨던 고 조동오 선배님!

창간 1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중앙일보 사회부에 나타난 선배님을 먼 발치에서 처음 대하며 느꼈던 그 형형했던 눈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 분이 바로 법조를 주름잡는 '조꿀'이야 하는 수군거림이 편집국 전체로 번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꿀'이란 애칭을 지니셨던 선배님은 그때 이미 법원·검찰청을 주름잡으며 수많은 특종 보도로 모든 법조 기자들의 경외의 대상이셨습니다. 한국일보 근무 시절이던 1963년 세상을 뒤흔들었던 세칭 '4대 의혹사건'을 비롯한 숱한 특종 보도는 선배님을 법조기자의 전설로 등극시켰습니다.

공화당 사전 창당 자금 마련과 관련, 한전 주식 10여만 주를 미리 싸게 확보해 놓고 거액의 차액을 챙긴 증권 파동, 워커힐 부정 도박사건, 새나라차 부정 사건 등은 5·16 군사혁명 정권 하에 벌어진 최대 의혹 사건으로 정치·사회적으로 군사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선배님은 후배 기자 한 명과 밤중에 비밀영장 담당 부장판사실에 잠입해 서랍과 서류함을 뒤져 영장 부분을 찾아내 손전등을 비추고 중요 내용을 베끼기를 2주 동안 수차례나 감행해 완벽한 취재를 하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여러 검찰 간부들과 돈독한 친분을 맺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주는 취재원이 많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기가 인사를 포함해 중요 고비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자문을 청하는 언론인이니 검찰 간부들도 선배님을 특별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배님은 이렇게 뛰어난 기자셨을 뿐 아니라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속정 깊은 선배이셨습니다. 후배들과의 그 술한 회식 자리에서 언제나 비용은 철저히 선배님 차지였습니다. 신문사에 그런 경향이 있긴



조사를 읽고 있는 성병욱 회우.

했지만 선배님은 유별날 정도로 철저하셨습니다.

제가 1969년 3월말 첫 해외 출장 중 도쿄에 들렀을 때 주일특파원으로 바쁜 중에도 반나절 시간을 내 서울에서 볼 수 없었던 곳을 안내해 주시고 저녁까지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90년대 대명레저 사장으로 계실 때 저를 비롯해 많은 후배들이 휴가철에 선배님 덕을 또 얼마나 보았습니까.

선배님은 언론인 답게 위 아래 가릴 것 없이 바른 말을 서슴지 않으셔서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셨지만 또 손해도 보셨던 것 같습니다. 편집국장이셨던 1974년말 동아일보 광고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과 기자들의 대립과정에서 국장단이 낸 사표를 철회해 달라고 댁으로 찾아간 후배들에게 부국장은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니 거두어 들이도록 권하겠지만 나는 마음을 비웠다고 하시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인의 꽃이라 할 편집국장에 오르셨지만 우리 후배들로서는 오래 모시지 못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신지 한 달여 만에 교수 위주 논설위원실 체제가 기자 출신 체제로 바뀌면서 저 같은 평가자와 차장들이 논설위원이 되자 선배님은 자원해 동서문제연구소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는 속 깊은 배려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론계 후배들이 모여 장의를 모시는 것을 선배님도 기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편히 잠드소서. [국문]

민규호 원로회우 별세

민규호 원로회우가 6월 1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에서 6월 3일 아침 발인했다. 고인은 1921년 서울에서 출생,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45년 대동일보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 민주일보를 거쳐 연합신문 사회부장



을 지냈다. 그 후 태양신문 자유신문 세계일보기자과 대한일보 사회부장, 시사통신 편집국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1979년 언론통폐합 후 퇴사하여 자유기고가, 대한언론인회 자문위원으로 활약했다. [4]

弔辭 동료들 경탄시킨 특종제조기

김재영(본회 원로회우·전 서울신문 지방부장)

그토록 자상하고 부지런하셨던 선생님과의 전화통화가 무척이나 힘들었던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저 할 말을 잊곤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시고도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시니 그 안타까움을 어찌 필설로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졸지에 부음을 받고 보니 망연자실, 선생님과 한 시대를 살며 과사현정(破邪顯正)의 칼날을 번득였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듣자오니 많은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이 참석해 애도해야 할 선생님 영전이 너무도 허전했던 것 같습니다. 연락이 제대로 안 돼 마땅히 조문해야 할 저도 몰랐으니 이 또한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승에서나 안식을 누리시기를 삼가 비오며 사모님을 비롯한 유가족 분들에게 이 지면으로나마 조의를 표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니 선생님의 걸어오신 90평생은 고집스러운 언론 외길이었습니다. 6·25 전쟁, 4·19학생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문민, 국민의 정부출범 등 반세기에 걸친 우리 근현대사의 언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살아온 우리들, 전후의 언론세대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격동하는 역사적 배경과 암울했던 한 시대의 사회 환경은 가히 무진장의 뉴스 원을 우리들 앞에 쏟아 냈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그 폭발적 뉴스원의 풍요(?) 속에서 사회부기자와 사회부장이 되고 마침내 기자의 최고 보직인 편집국장까지 맡아 보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선생님은 20여년간 법조계를 출입하시면서 특종에 특종을 수도 없이 보도해 동료 언론인들로 하여금 경탄을 금할 수 없게 했습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지만 선생께서 그토록 발이 닳도록 출입하시던 법창(法窓)에는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줄 대 사건에서부터 한낱 잡법에 이르기 까지 모든 세대가 투영되곤 했습니다. 특히 장면 부통령 피격 사건에서부터 정관사 위폐사건 특종 보도는 선생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단독 취재였음을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박인수 연쇄 사건의 전모를 파헤친 선생의 번득이는 취재안목은 요즘도 가끔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민규호 선생님! 이제 선생님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선생께서 남기신 그 값진 족적은 우리 후진들에게 영원한 귀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극락왕생 하시는 길에 명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과의 이별을 통곡하며 거듭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

弔辭 영원한 대기자 조동표 선배

이태영(본회부회장·전 중앙일보 색선국장)

무엇이 그리 급하여 서둘러 떠나시려합니까. 그동안 쌓아오신 영광의 길, 큰 걸음. 그보다 힘에 넘치는 그 음성이 귓전에 남아 있는데 어인 일 이신지 허망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장탄식을 듣고 계십니까. 나무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멎지 않는 것처럼 세월과 함께 인결도 사라지게 마련입니까. 언제나 정이 넘치신 선배님은 때로는 한 가족처럼, 또는 큰 스승처럼 저희를 이끌어주셨지요. 그래서 더욱 저희들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듯합니다.

선배님은 일을 위해 태어나신 분, 끝없는 열정과 의욕으로 올해 미수를 맞으시기까지 항상 현장을 뛰면서 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수수한 모자와 운동화에 땀 땀방울,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선배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스포츠기자, 평론가로서 걸어오신 한 평생은 한국스포츠 무한전진의 역사와 함께 빛날 것입니다. IOC 공로트로피, 소강체육대상, 아산체육대상 등 많은 수상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선배님과 함께 한 세월이 어느새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지난날 서울-부산간 역전마라톤대회 때는 가파른 언덕, 흙길을 마다않고 코스를 달리며 대회운영을 진두지휘하시던 모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비킬라 아베베를 불러 국제마라톤대회를 열고 장사씨름, 국제농구대회 또는 재일동포학생야구단 초청 전국순회경기 등 1960년대 들어 한국스포츠의 동맥을 만들어 가실 때의 열정적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한국일보에 들어가 그 대오에 서서 땀 흘리던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아울러 IOC위원인 장기영 한국일보 사주와 민관식 전 대한체육회회장께서도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해주셨지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신 손기정 선생님과 함께 마라톤진흥에 앞장서서 도쿄올림픽에서, 또 방콕 아시안게임



조사를 읽고 있는 이태영 부회장.

에서 고향지르시던 일,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안은 양정모 선수를 열싸안고 기뻐하시던 일, 그리고 86, 88 영광의 행진에 동분서주하시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제 런던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감동의 순간을 하늘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 응원하시겠지요.

선배님의 의욕은 누구도 따를 수가 없었지요. 인물체육사와 칼럼집 10여권을 쓰신 뒤에도 올해 미수를 기념하여 또 한 권의 저술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지요. 바로 한 달 전의 그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하나 더 소망이 있다면 올해 착수된 한국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선배님의 60년 스포츠생애를 모시고 싶습니다. 안타깝고 죄송한 일은 부장님, 국장님 당시 귀중을 받고 자란 저희 후배기자들이 조촐한 미수축하자리를 마련하려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너그라이 받아주시기를 빕니다.

언젠가 저에게 말씀 하셨지요. 신문기자는 정년이 있지만 평론가의 길은 무한한 것이라고- 더구나 저술가가 되려면 세월의 벽을 초월하는 정보력과 지구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펜을 놓아버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남겨놓으신 일이 있다면 그 뒤를 잇겠습니다. 근심 없는 저 세상에서 편히 안식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영혼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시오. [4]

회우들이 펴낸 新刊

이도형 회우 '망국과 흥국'

이도형 회우(전 조선일보 논설위원·한국논단 발행인)가 19세기 말 한국과 일본을 조명한 '망국과 흥국'을 펴냈다. 다음은 이책에 대한 서평이다.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역사는 선대의 흔적이거나 자취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대의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비판을 창조해야한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구한말 한국역사

에 관련된 수업은 극한 현실에 대한 시대적인 기록의 나열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망국과 흥국'은 일제강점기 36년이라는 치욕적인 역사에 대한 과정을 양국의 시기별로 분석하여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우리를 역사의 뒤편길로 이끌었는지를 독자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그동안 대중이 접한 구한말 한반도역



사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의 평가는 소설이나 공연, 영화, 드라마를 통한 지극히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었다. 그래서인지 하나같이 모두들 본인들의 권력과 부귀영화보다는 '어려운 시절 나라를 사랑한 한국의 위인'으로 여겨진다.

선조의 의도보다는 국제적인 안목과 탁월한 직관력을 가지고 풍전등화 조국을 인도하던 등불이 19세기말 한반도에서는 너무나도 절실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선조의 의도만을 가진 인물들로 넘쳐났다. 반면 일

본은 무엇이 우리와 달랐기에 한일합방과 36년의 어두운 역사를 우리에게 안길 수 있었는지 사실의 열거만으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다.

저자 이도형선생님은 '바보 같을 정도로 성실하고 우직하고 순응성이 있는 일본인'이 '똑똑하고 개성과 창의성이 풍부한 한국인'들의 주권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일본 외무성 사료관을 비롯하여 동경 고서점가를 동분서주하시면서 그동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근대사를 집대성하여 우리에게 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보다 내일을 살아갈 후손을 위하여 더욱 귀중한 역사의 자료가 될 것이다. [4]

황승경(문화미래포럼 사무처장)

회우동정

가나다순

환경 문화 상 수상



강승훈(서울 언론클럽 회장·전 대한일보 편집부국장)회우= 지난 6월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월드그린연합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2 제10회 대한민국환경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언론부문 환경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경향신문사우회 회장



김명수(신아일보회장)회우= 지난 6월 28일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경향신문 정기총회에서 제4대 경향신문사우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김 신임 회장은 69년 경향신문 수습 기자로 입사, 제2사 회부장, 문화부장,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광고본부장을 거쳐 경인일보 사장, 부동산TV 회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바이칼 호수, 몽골 등 여행



김 현(방송인·여행연출가)회우= 부인 조동현 여사와 함께 공동대표로 있는 2 Hyung Travel Club 회원들을 인솔하고 7월 25일부터 8월 1일 까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와 몽골 등을 여행한다.

‘독도가 일본 정부에 묻습니다’ 출판지원



박용운(한국사진기자동우회 회장) 원로 회우= 최근 박씨문화선양회(회장 박재원)가 발행한 ‘독도가 일본정부에 묻습니다’ 출판을 지원하고 이 책을 친지들에게 선물했다. 이 책은 독도가 자기나라 땅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일본 외무성 등의 홍보자료에 실린 문제점들을 찾아 일본 정부에 반문하는 방법으로 편성돼 있다.

인터넷신문 심의위원장 재선임



성병욱(전 중앙일보 주필) 회우= 6월 7일 열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104차 이사회에서 제2기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됐다.

12개 대학도서관에 족보 기증



장두원(아시아 투데이 부회장)회우= 지난해 펴낸 인동장씨중 서도 장씨 행재공파의 족보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의 12개 대학 도서관에 보내 한국학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케 했다. 이 족보는 한국에서의 장씨 위상등을 영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출판기념회 참석 축하



제재형(본회 고문)= 지난 6월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박근혜 리더십-꽃으로 감을 베다’ 출판기념회에 참석, 축하를 했다. 한편 제 고문은 지난 6월 경북 문경시 남선교회의 의료선교행사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뉴질랜드 ‘공로훈장’ 수훈



지갑종(유엔한국참전국협회장) 원로회우= 지난 6월 4일 영국 여왕 즉위 60주년을맞아 유엔참전국인 뉴질랜드 국회가 승인하에 수여하는 국제교류공로훈장을 받았다. 지회장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뉴질랜드 전적기념비 설립에 일조했다. 이로써 지회장은 유엔참전 9개국으로부터 공로훈장을 받았다.

6·25 종군기자 활동상 증언



한영섭(6·25 종군기자·전 KBS 보도실장) 원로 회우= 6월 25일 오전 9시 11시, 오후 3시 밤 8시 KBS 1TV에서 ‘6·25 종군기자들의 활동상과 취재현장’을 증언.

헌병 역사관에 시(詩) 게시



황대연(본회 6·25참전언론인회 부회장)원로회우= 육군헌병학교 출신인 황회우의 시 ‘헌우(憲友)여 영원하라!’가 충북 영동으로 옮겨 개교한 육군종합행정학교 헌병역사관 현관 입구 무궁화 사진이 배경으로 된 대형 벽면에 게시되었다.



본회 6·25 참전언론인회 임원 이용걸 국방차관 방문 간담회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20일 낮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회 임원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부에서 김민석 대변인, 윤원식 공보관(부대변인) 6·25사업 TF팀장이 배석했으며 대한언론인회에서는 홍원기 회장을 비롯,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 김준하 송두빈 지용우 한영섭 황대연 회우 등

6·25참전언론인과 정운종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이용걸 국방차관은 이 자리에서 군 장병 안보교육 강사에 6·25참전언론인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6·25전쟁과 나’ (가제) 출판, ‘대한언론’ ‘국방일보’ 교환 구독, 안보 현장 답사, 후원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4]

본회 서도회 출범 ... 매주 수련

대한언론인회 서도회 첫 모임이 지난 6월 15일 오후 5시 본회 사무실에서 10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했다. 남덕한석봉 선생 지도하에 열린 이날 서도회 모임은 우선 붓을 잡는 방법에서부터 획을 긋는 연습으로 시작됐다. 회원들은 매주 금요일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서예수련을 한다. [4]



이혜복 고문 구순 축하연

이혜복 고문의 구순을 맞아 자녀들이 7월 7일(토) 오후 6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룸에서 가족들과 평소 이 고문과 가까운 몇몇 친지들을 초청,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다.

최창봉 명예회우 미수 축하연

최창봉 명예회우의 88세 미수(米壽)를 맞아 지난 6월 1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함춘원에서 한국방송인회 주관 축수연이 있었다. 이날 대한 언론인회에서는 김은구 상담역, 김성배 부회장, 안평선 한중광 이사, 신대근 정창기 편집위원, 김수웅 김주철 회우가 참석했다.

▶ 결혼 ◀

박승구 회우= 7월 1일 낮 12시 현대컨벤션웨딩홀 5층에서 장남 결혼

▶ 주소·전화번호 변경 ◀

신광식= 서울 서초구 방배4동 3276 한진 로즈힐 102동 101호

▶ 본회인사 ◀

정창기(전 KBS 해설위원)회우= 6월 1일자로 편집위원으로 위촉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가나다순 괄호안 납입연도)

권도홍(12)	이상근(11,12)
김건이(윤재13)	이선희(12)
김병모(12)	이홍우(12)
심재복(12)	정준모(12)
안건혁(12)	정홍택(12)
유지호-	천승준(11,12)
(9,10,11,12)	한건주(10)
이경식-	황순종(12)
(9,10,11,12)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서
포스코를 만나보세요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캠페인은 대한민국 모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포스코의 새로운 캠페인입니다

NAVER + Mobile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가족과 가족, 친구와 친구, 선배와 후배, 이웃과 이웃...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안다는 것, 소통의 시작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세요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되면 통하게 됩니다

posco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한순간도 쉬지않는
바다처럼,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그리고 반도체까지
지금까지의 수출과 기술을 넘어, 세계를 이끌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매출 약 95% 수출



최근 5년 누적 수출 100조 달성
무자원 산유국 꿈 실현



IT 신기술 개발 등
혁신을 통한 정보통신 강국 구현